

보도자료

2026년 9월 22일 공보 2026-09-28호

이 자료는 9.22일 11:0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 한국은행은 2026년 9월 22일(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 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3일 예정)

붙 임 : 금융안정 상황(2026.9월)의 주요 내용

[문의처]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팀 장 조성민 (750-6834)
		차 장 박민렬 (750-6840)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팀 장 최지연 (759-4482)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팀 장 최재혁 (759-5773)
[공보관]	02-759-4016,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금융안정 상황(2026.9월)의 주요 내용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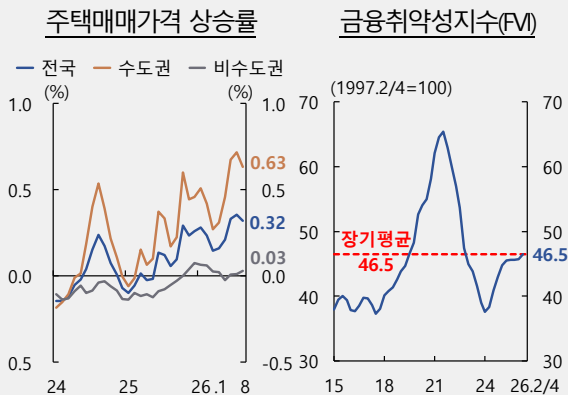
I. 종합 평가	1
II. 부문별 상황	4
1. 가계 및 기업 신용	4
<참고 1>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8
2. 자산시장	10
<참고 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13
<참고 3> 8월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14
3. 금융기관	16
<참고 4> 카드사 주요 리스크 요인	21
<참고 5> 증시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22
4. 대외부문	24
<참고 6> 최근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부진 배경	27
5. 금융제도 및 정책	28
III. 주요 이슈 분석	30
<이슈 1>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 금융안정 상황 점검	30
<이슈 2> 한계기업 부실위험 평가	34
<이슈 3> 증권회사의 유형별 잠재리스크 점검	37
<이슈 4> 환율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부문 영향 평가	41
[부문별 담당팀 및 집필자]	44

한눈에 보는 금융안정 상황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도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 우리 경제의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2] 또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장기 시장금리 상승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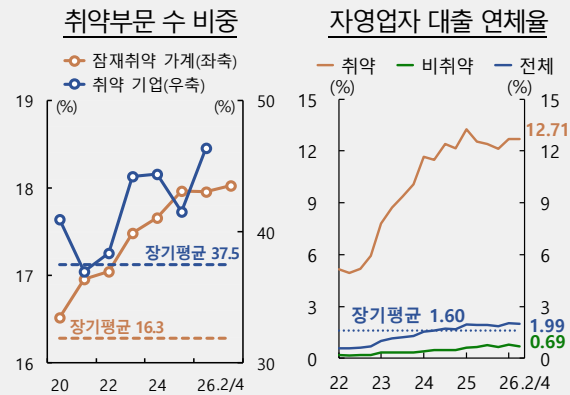
1 금융불균형 누증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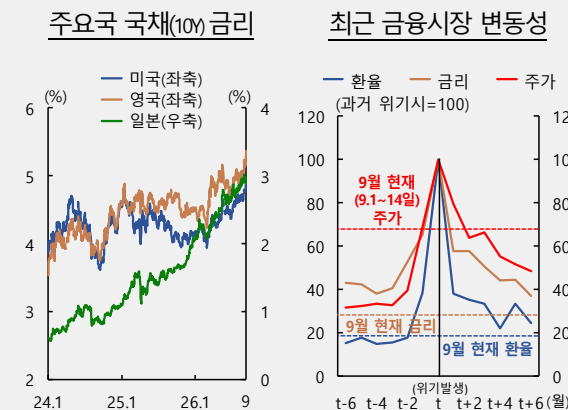
2 취약부문 채무상환부담 증가

소득 개선 차별화로 취약 가계·자영업자, 한계기업 및 부동산PF 등의 부실 가능성이 증대될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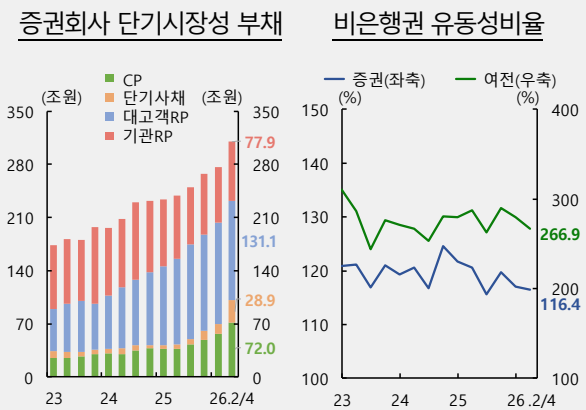
3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주요국 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4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부담 증대

일부 비은행권의 차환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충격 발생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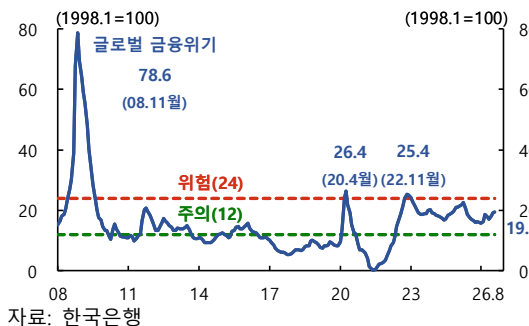
I. 종합 평가

1. 국내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커진 가운데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도 높아질 수 있는 등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¹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소득 개선 정도가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² 또한 미 연준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장기 시장금리 움직임,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³

금융시스템의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⁴는 2026년 7월중 19.3, 8월중 19.5로 최근 주의단계(12~24)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다.^[그림 1]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⁵는 2026년 2/4분기말 46.5로 가계신용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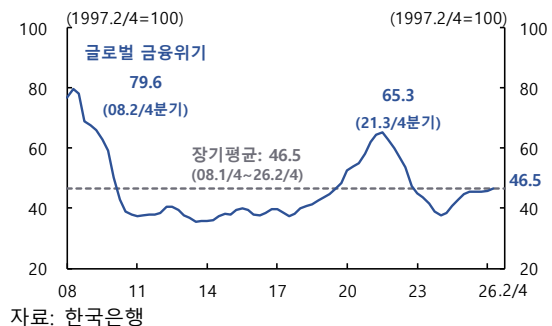
[그림 1] 금융불안지수(Financial Stress Index)

주의 단계에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불안 요인이 지속



[그림 2] 금융취약성지수(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 흐름



¹ 한국은행은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가계대출 증가 압력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년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²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문별 영향을 주요 금융안정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차주 전반의 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하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1>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참조

³ 특히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큰 일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3> 「증권회사의 유형별 잠재리스크 점검」 및 <참고 4> 「카드사 주요 리스크 요인」 참조

⁴ 금융시장, 실물, 대외, 은행, 비은행 5개 부문의 20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로,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나타내며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각각 12와 24이다.

⁵ 중장기 금융취약성 상황을 나타내는 3개 평가요소(신용, 자산가격, 금융기관 복원력)와 관련된 64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로, 금융불균형 누증 정도를 나타낸다.

2.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은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기업 신용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2/4분기중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모두 확대되었다.⁶ 다만, 가계부채 비율은 큰 폭의 GDP 성장세에 힘입어 2026년 1/4분기말 85.3%로 전년말 (88.1%)대비 하락하였고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를 포함한 민간신용 레버리지 하락이 반도체 수출 급증 등에 따른 경제성장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향후 AI 관련 투자 축소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대출은 기업의 자금수요와 금융기관의 완화적인 대출태도 등에 따라 은행·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2026년 2/4분기말 명목GDP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비율은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PF 구조조정 지속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하향 추세를 지속했다.

3. 가계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업 연체율이 비은행과 중소기업 대출 위주로 상승하였다. 가계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2026년 2/4분기 들어 소폭 하락했으며, 취약차주 비중은 다소 상승하였다. 반면 기업 연체율은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부동산, 숙박음식 등 일부 내수업종은 한계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금속제품,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도 한계기업 비중 상승폭이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업종의 대출 연체율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⁷

4. 자산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되었고, 주가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큰 폭 조정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중동지역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리 변동성 증대 등으로 확대되었다. 주식시장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 최대 실적 발표 및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주가지수가 금년 2/4분기중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6월 하순 이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폭 조정되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한편 주식시장 변동성은 2/4분기중 주가의 가파른 상승 및 조정 과정에서 급증하였다가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⁸

5.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고가주택보다 중·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수요가 집중되는 등 지역별로 다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⁹ 한편,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가격의 상승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⁶ 다만 금년 7월 이후에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⁷ 지난해말까지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2> 「한계기업 부실위험 평가」 참조

⁸ 주가 변동성지수는 6월(일평균 85.4) 이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⁹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와 맞물리면서 주택매입 수요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참고 3> 「8월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참조

6.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은행의 경우 완만한 저하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은행은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이지만, 복원력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PF 구조조정,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일부 PF 사업장의 건전성 저하 등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자본비율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유동성비율도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다만 비은행의 경우 상호금융을 제외한 저축은행,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유동성부채 증가 영향 등으로 유동성비율이 낮아졌다.

7. 대외부문에서는 그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던 환율이 최근 하락하였으며, 외화 자금조달 여건과 대외지급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상황, 국내주가 급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도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금년 7월 이후 외환시장 수급개선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로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거래의 경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순투자 흐름이 이어졌고,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의 경우 채권자금이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다가 7월 이후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¹⁰ 국내주가 상승에 따른 보유비중 재조정 등의 영향으로 주식자금도 순유출되었다. 대외지급능력은 단기외채비중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8.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금융불균형의 축적 정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부문별 소득 개선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의 기대심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방향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11, 12} 국내 경제 성장의 파급효과가 부문별로 다른 상황에서 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부문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복원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9.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및 성장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미시적으로 보완¹³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정책과의 정책공조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¹⁰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규모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외화자금 수급 여건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최근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부진 배경」 참조

¹¹ 환율 변동성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4> 「환율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부문 영향 평가」 참조

¹² 최근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한 분석은 <참고 5> 「증시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참조

¹³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강화, 취약차주 이자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리 상승기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2026.8.28일)하였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1.25%로 동결(2026.8.27일)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채무조정 등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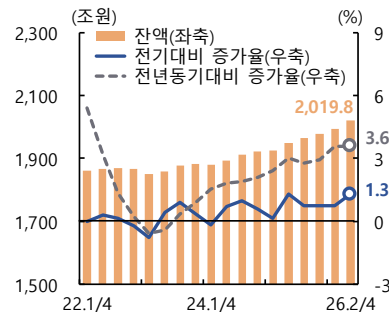
Ⅱ. 부문별 상황

1. 가계 및 기업 신용

1. 가계신용은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 2026년 2/4분기중 가계신용은 국내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12.2조원)과 기타대출(+12.8조원) 모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율(+1.3%)이 상승하였다(가계신용통계 기준).¹⁴ [그림 3, 4] 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며 전분기대비 크게 하락(134.1%→127.8%)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그림 3] 가계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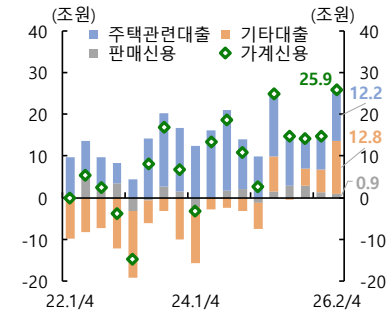
가계신용은 증가세 확대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가계대출 유형별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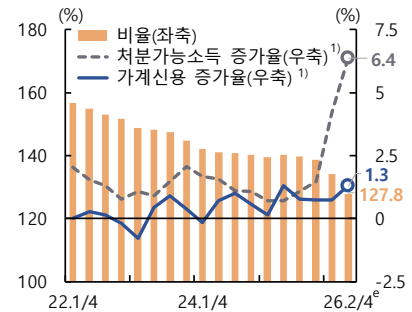
주택관련대출, 기타대출 모두 증가폭 확대



주: 1) 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5] 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

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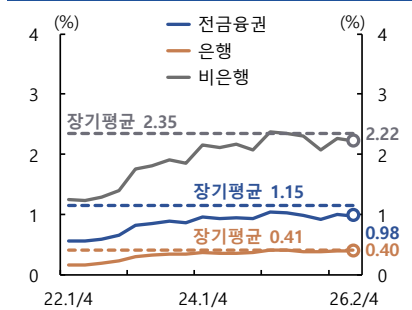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2.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락하였으나 취약차주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2026년 2/4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0.40%→0.40%)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은행(2.26%→2.22%)이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체적으로 소폭 낮아졌다(1.00%→0.98%). [그림 6] 차주수 기준으로 2026년 2/4분기 취약차주 비중(6.7%→6.8%)은 소폭 증가하였고 잠재 취약차주 비중(18.0%→18.0%)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¹⁵ [그림 7, 8]

[그림 6]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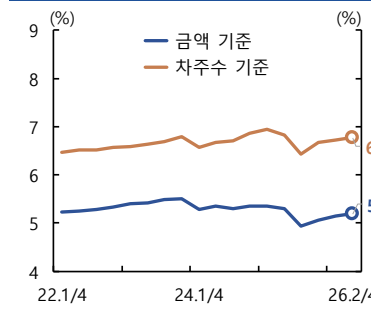
은행 전분기 수준 유지, 비은행 소폭 하락



주: 1) 장기평균은 10년 1/4분기~26년 2/4분기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7] 취약차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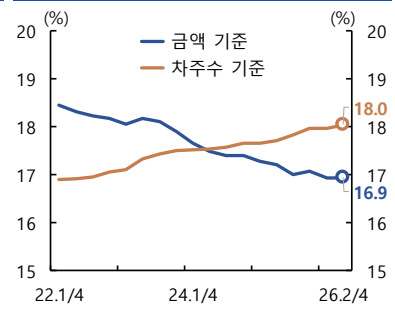
차주수 기준 소폭 증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그림 8] 잠재 취약차주 비중

차주수 기준 전분기 수준 지속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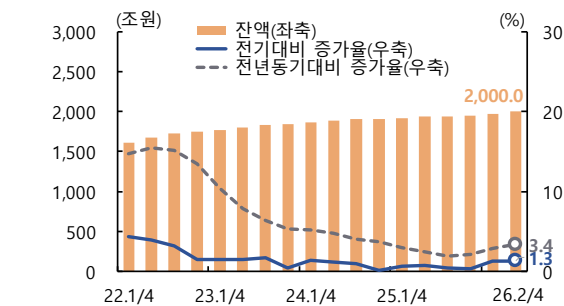
¹⁴ 월별 가계대출 증감액(전금융권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3월 +3.5조원 → 4월 +3.5조원 → 5월 +9.3조원 → 6월 +8.3조원 → 7월 +6.4조원 → 8월 +2.6조원

¹⁵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 잠재 취약차주는 취약차주의 특성에 근접한 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를 의미한다. 잠재 취약차주 비중이 금액 기준과 차주수 기준에서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차입금액이 큰 잠재 취약차주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1인당 차입금액이 감소(22년 1/4분기말 1.03억원 → 26년 2/4분기말 0.92억원)한 데 기인한다.

3. 기업신용은 기업대출이 2026년 2/4분기 3.4%(전년동기대비) 늘어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9]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¹⁶[그림 10] 기업대출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상당폭 상회하는 가운데 비은행과 중소기업¹⁷ 대출 위주로 상승하였다.^[그림 11]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회사채는 1/4분기에 이어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순상환되었으며 CP는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순상환으로 전환되었다.¹⁸[그림 12]

[그림 9] 기업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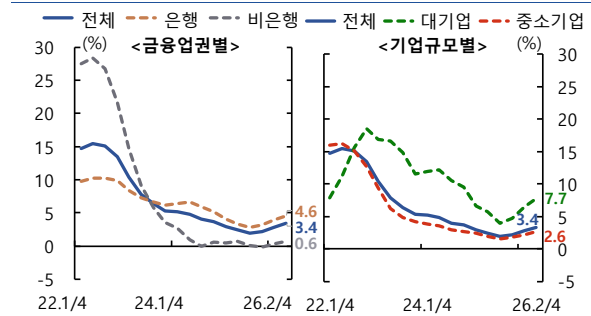
기업대출 완만한 증가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10] 금융업권 및 기업규모별 기업대출¹⁾ 증가율²⁾

은행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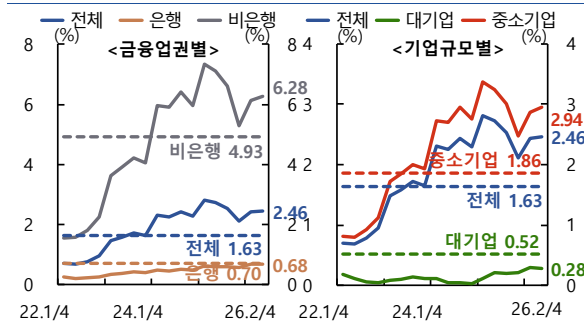
주: 1) 금융 및 보험업 제외

2)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11] 금융업권 및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연체율¹⁾

비은행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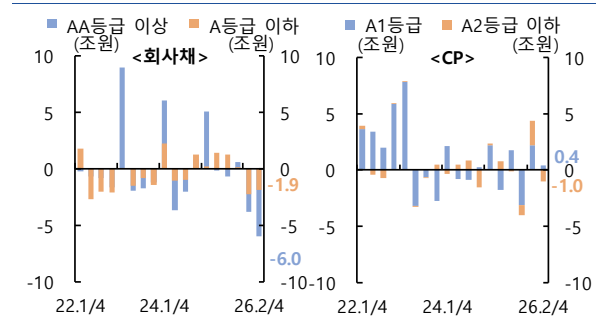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월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점선은 부문별 장기평균으로, 2010년 1/4분기~2026년 2/4분기중 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12]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¹⁾

회사채는 순상환 유지, CP는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순상환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¹⁶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6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26.7.20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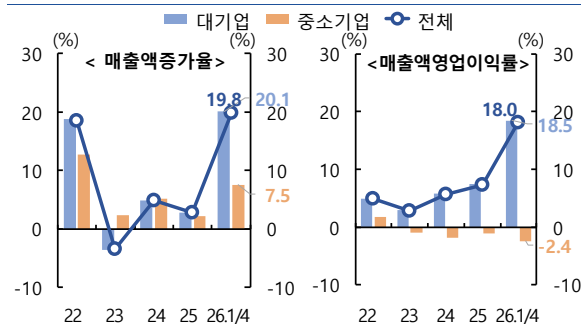
¹⁷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중소기업(25년 4/4분기 2.88% → 26년 2/4분기 3.44%)과 개인사업자(1.89% → 2.22%) 모두 상승하였다.

¹⁸ 금년 들어 업황 호조로 현금성자산이 크게 늘어난 반도체 기업의 단기자금운용 수요가 확대되면서 채권시장의 수급부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기업¹⁹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보면, 2026년 1/4분기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의 호황으로 성장성과 수익성²⁰이 크게 개선되고 안정성도 양호한 모습이 이어졌으나, 대기업 중심의 개선이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다.^[그림 13] 부채비율은 2025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의 비중은 중소기업 위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14] 한편,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13배가 넘는 등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적자 지속으로 기업규모별로 격차가 커지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그림 15, 16]

[그림 13] 성장성¹⁾ 및 수익성²⁾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영업이익률 모두 크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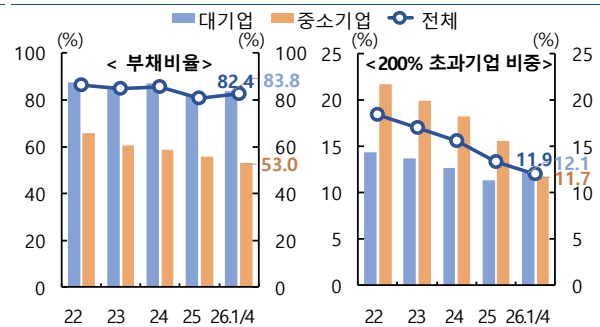


주: 1) 매출액증가율(전년동기대비)
2)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자료: Value Search

[그림 14] 안정성¹⁾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²⁾ 비중이 하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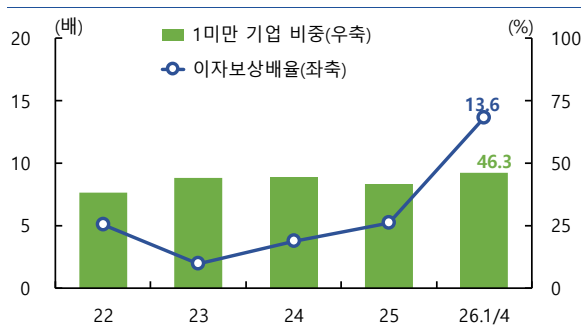


주: 1)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Value Search

[그림 15] 이자지급능력¹⁾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취약기업 비중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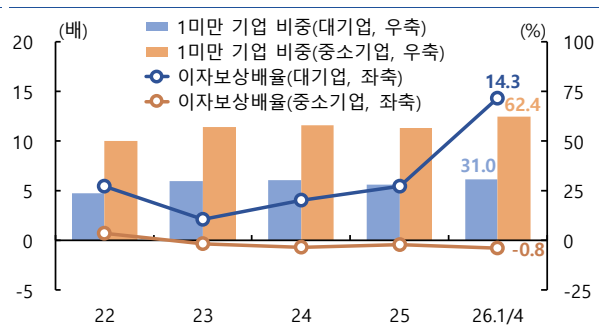


주: 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자료: Value Search

[그림 16]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



자료: Value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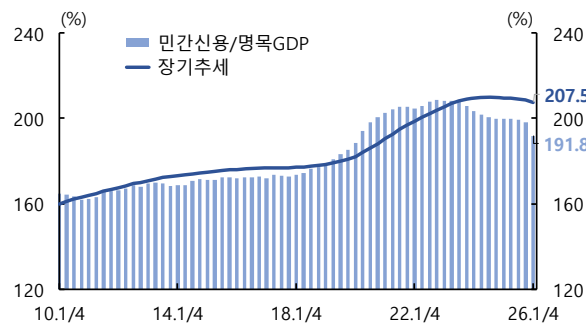
¹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 및 일부 비상장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26년 1/4분기말 기준 2,760개 기업(대기업 1,419개, 중소기업 1,341개)이다.

²⁰ 업종별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전기전자(25년 4/4분기 12.9%→26년 1/4분기 41.1%)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한편, 「2026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한국은행, 26.9.9일)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중에도 전기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2026년 1/4분기말 기준 191.8%로 전분기(198.0%)보다 큰 폭 하락하였다. [그림 17]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6년 1/4분기 명목GDP가 큰 폭으로 확대(전기대비 +10.5%)되며 가계신용 레버리지(88.1%→85.3%)와 기업신용 레버리지(109.9%→106.5%) 모두 전분기대비 낮아졌다. ²¹ 다만, 가계 및 기업 모두 장기평균(가계 84.0%, 기업 98.9%)을 상회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평균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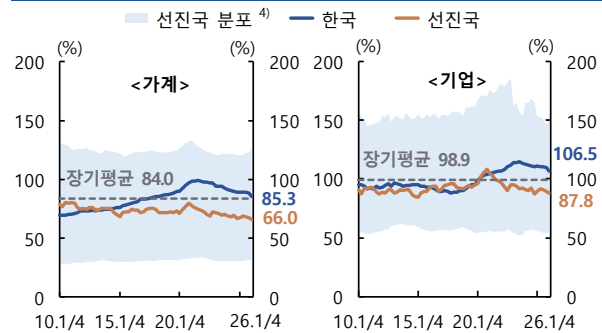
[그림 17] 민간신용¹⁾/명목GDP²⁾ 비율

2026년 1/4분기말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큰 폭 하락



[그림 18] 부문별 민간신용¹⁾/명목GDP²⁾ 비율³⁾

가계·기업 신용레버리지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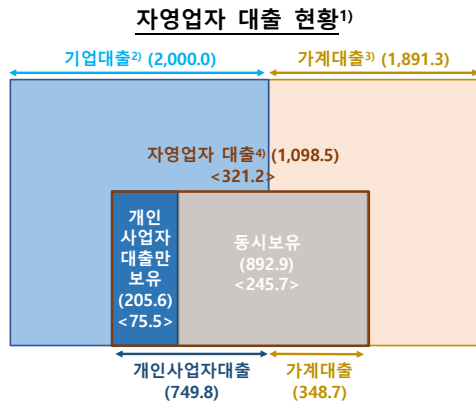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 합계 3)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 ~ 2026년 1/4분기중
4) 선진국은 한국, 호주, 캐나다,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 기준(홍콩은 분포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BIS

²¹ 2026년 2/4분기말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GDP 성장세가 이어진 데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1/4분기(85.3%)보다 낮은 대략 8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2026년 2/4분기말 기준 자영업자²² 대출은 전체 금융권 대출(금융기관 기업대출+가계대출)의 28.2%에 해당하는 1,098.5조원으로 2025년말대비 5.6조원 증가²³하였으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차주수는 총 321.2만명으로 전년말(321.1만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²⁴하였으나, 자영업자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소폭 확대(3.40억원 → 3.42억원)되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645.4조원)과 비은행 대출(453.1조원)이 모두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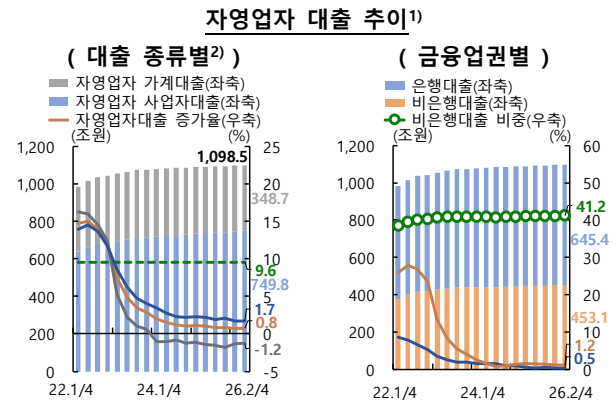
주: 1) 2026년 2/4분기말 기준, ()내는 대출잔액(조원), < >내는 차주수(만명)

2)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

3)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4) 가계부채DB 추정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잔액은 기말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점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장기평균(2013~2026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6년 2/4분기말 현재 1.99%로 전년말(1.86%)보다 상승하여 장기평균(2012~2026년 평균 1.60%)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3.86%)과 취약 자영업자²⁵(12.71%)의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연체 현황을 기존 연체의 지속(연체지속률)과 신규 연체 진입(연체진입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존 연체의 장기화와 취약차주의 신규 연체 진입 증가가 모두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지속률은 2022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026년 2/4분기에는 80.9%²⁶로 전년말(78.4%)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며, 특히 취약차주(82.3%)와 비취약차주(78.0%) 모두 전년말(각각 81.2%, 74.0%)보다 높아졌다.

²² 가계부채DB(약 235만 차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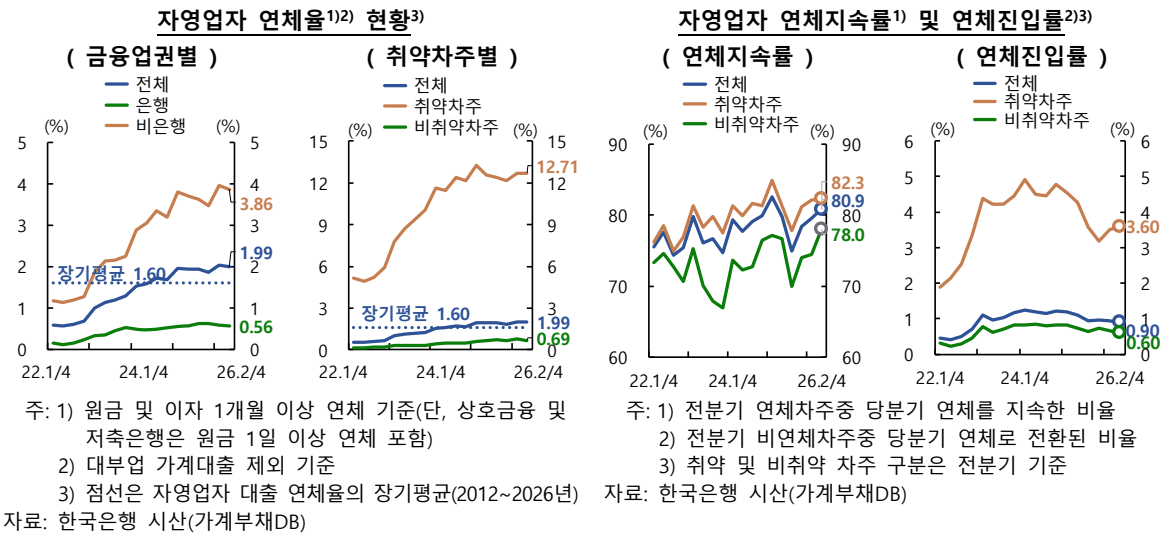
²³ 자영업자 대출 추이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개인사업자대출(749.8조원)은 전년말보다 증가(+9.2조원)한 반면, 가계대출(348.7조원)은 감소(-3.6조원)하였다.

²⁴ 자영업자중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75.5만명으로 전년말보다 소폭 증가(+0.5만명)하였으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는 245.7만명으로 소폭 감소(-0.5만명)하였다.

²⁵ 취약 자영업자 차주(다중채무자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 차주)는 2026년 2/4분기말 41.1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2.8%를 차지하며, 2025년말(40.4만명)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이들 취약차주 보유대출도 같은 기간 114.6조원에서 119.2조원으로 4.7조원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0.9%를 차지하였다.

²⁶ 이는 지난 분기 연체 자영업자 차주의 80.9%가 이번 분기에도 연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연체진입률은 2026년 2/4분기말 현재 0.90%²⁷로, 2022년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2025년부터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지속하였다. 다만 차주 특성별로는 비취약차주의 연체진입률(0.60%)이 전년말(0.72%)보다 하락한 반면, 취약차주(3.60%)는 전년말(3.17%)대비 상승하였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진입률과 연체지속률이 모두 비취약차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상환여건 악화시 연체 전환 가능성이 높고 연체 발생 후 정상화에도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총량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취약차주 수 및 대출 증가,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연체율 등 질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은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연체율 상승에는 기존 연체의 장기화가 주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취약차주의 신규 연체 발생 증가도 가세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상방 압력은 다소 높아졌으나, 경제 성장세의 내수 확산과 정부의 취약차주 지원²⁸이 연체위험을 완화하면서 연체율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영여건 악화가 신규 연체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영업 차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필요한 금융·경영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과 사업정리·취업·재창업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지원이 차주의 상환유인을 저해하거나 부실 이연을 초래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차주의 경영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적절히 선별하고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병행함으로써 금융지원 체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²⁹

²⁷ 이는 지난 분기 비연체 자영업자 차주의 0.90%가 이번 분기에 신규로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했음을 의미한다.

²⁸ 정부는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① 채무조정 활성화,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③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6.8.28일). 특히 동 방안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대,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사업 등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연체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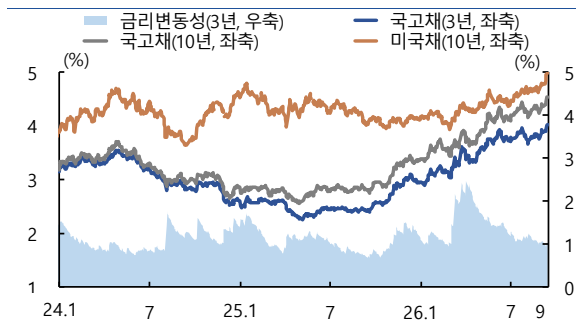
²⁹ 정부는 최근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방안」(금융위원회, 26.6.25일) 및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26.6.19일)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 및 보증심사 강화, 부실채권 정리 등 취약차주 지원과 금융지원 체계의 건전성 제고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2. 자산시장

6.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었다. 국고채 금리는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4월 들어 미국-이란 중전협상 기대와 WGBI 편입 영향 등으로 상승 폭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성장세 확대³⁰ 등으로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가 점차 커지고, 이후 주요국 장기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금리 상승세가 보다 뚜렷해졌다.^[그림 19]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리 변동성 증대 등으로 확대되었다.^[그림 20]

[그림 19] 국고채 금리 및 금리 변동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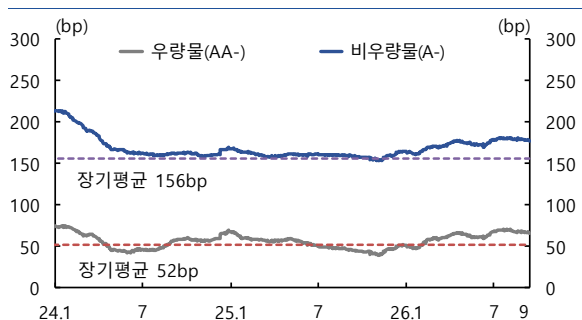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는 큰 폭 상승



주: 1) 국고채 3년물, 지수가중이동평균(EWMA)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그림 20]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²⁾

신용스프레드는 확대



주: 1) 국고채 3년 금리대비 2) 장기평균은 13.1월~26.9.14일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7.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금년 2/4분기중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가 6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조정받는 등 높은 변동성³¹을 나타내었다. 코스피는 4월 이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및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6월 하순 9,000대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중국의 반도체 공급확대 가능성,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5,000대 중반까지 큰 폭 하락하였다. 8월 이후에는 미국 기술주 강세 등으로 하락폭을 일부 회복하였으나 AI 투자둔화 우려,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6,000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그림 21, 22]

[그림 21] 코스피 및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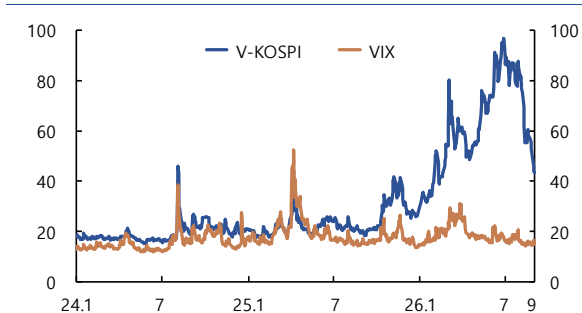
코스피는 가파르게 상승한 후 7월중 큰 폭 조정



자료: 코스콤, Bloomberg

[그림 22] 변동성지수

주가 변동성지수는 큰 폭 상승 후 반락



자료: 코스콤,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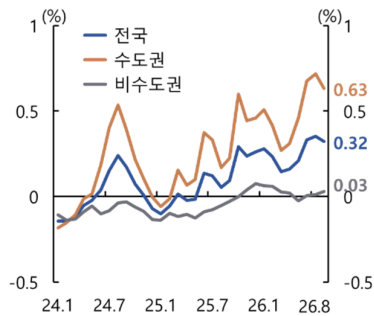
³⁰ 2026년 1/4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은 전기대비 1.7%, 전년동기대비 3.6%로 예상치(각각 0.9%, 2.6%)를 웃돌았으며, 2/4분기 GDP 성장률(속보치)도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3.7%로 예상치(각각 0.4%, 3.5%)를 상회하였다.

³¹ 주가 변동성지수(V-KOSPI)는 주가의 가파른 상승과 조정 과정에서 사상 최고수준으로 급등하였다가(96.9, 6.29일) 이후 상당폭 하락(일평균 7월 84.7, 8월 62.2)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19.8, 2010년 이후)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8.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격 상승 기대는 8월 부동산대책³² 이후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23, 24] 주택매매거래량은 2026년 들어 대체로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3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가 이후에는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그림 25]

[그림 23]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수도권 위주 상승세 지속 후 8월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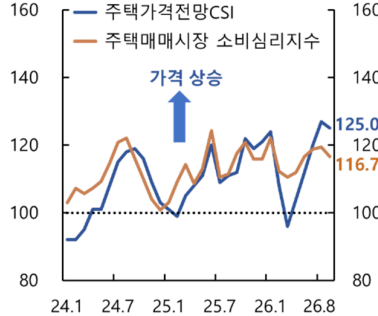
주: 1) 전월대비 2) 100을 초과할수록 1년 후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

3) 100을 초과할수록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 4) 신고일 기준, 점선은 10.1월~26.6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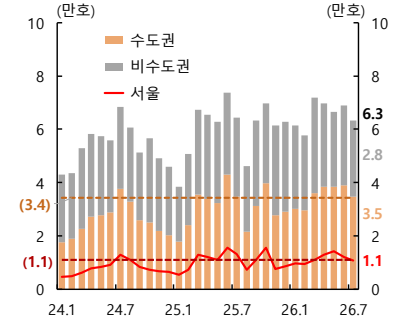
[그림 24] 주택가격전망CSI²⁾ 및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³⁾

8월 하락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림 25] 주택매매거래량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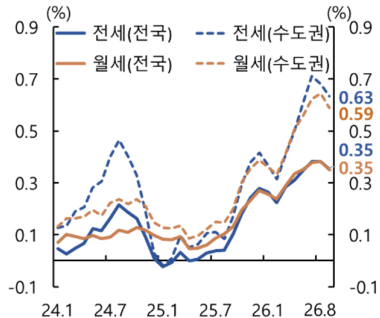
주택매매거래량은 7월 소폭 감소



9. 임대차시장의 경우 전월세가격의 상승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림 26] 전월세거래량은 3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임대차거래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67.6%)에서 유지되고 있다.³³[그림 27]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세거래와 달리 월세거래가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등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28]

[그림 26]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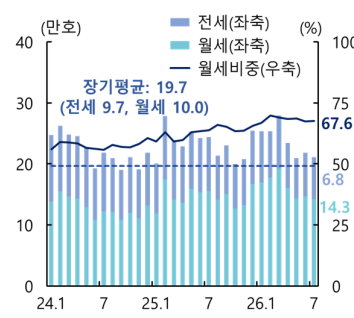
전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



주: 1) 전월대비

[그림 27] 주택전월세거래량²⁾³⁾

전월세거래는 3월 이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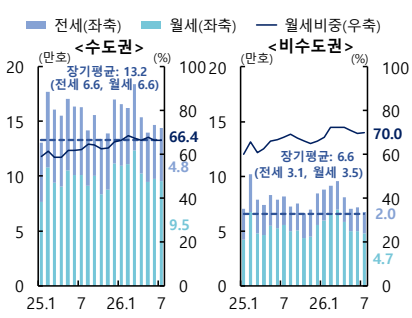
2) 점선은 17.1월~26.7월 평균

3) 2021년 6월 이후 집계범위가 확정일자 신고자료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자료로 확대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그림 28] 지역별 전월세거래량²⁾³⁾

모든 지역에서 월세 중심으로 거래



³²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6.8.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위원회, 26.8.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교통부, 26.8.13일)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부동산대책의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8월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참조

³³ 전세거래량은 감소세, 월세거래량은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2022년 8월 이후 월세거래량이 전세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10.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금년 8월 들어 시가총액이 다시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 강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출 확대³⁴ 및 주요 DAT 기업의 비트코인 매각³⁵ 등으로 시가총액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8월중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SEC) 기대³⁶ 등이 부각되고 장기 국채 매입한도 확대(재무부)³⁷에 따른 미 달러화 약세 가능성 등으로 투자수요가 일부 회복된 모습이다.^[그림 29] 한편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하반기 들어 줄어들었다가 8월 이후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상당폭 확대되었다.^[그림 30]

[그림 29]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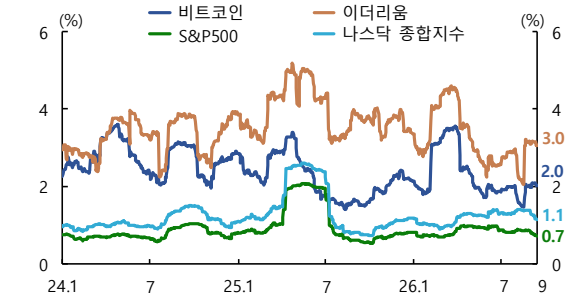
2026년 8월중 투자수요 일부 회복으로 증가



자료: CoinGecko

[그림 30] 글로벌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¹⁾

하반기 들어 변동성이 축소되었다가 8월 이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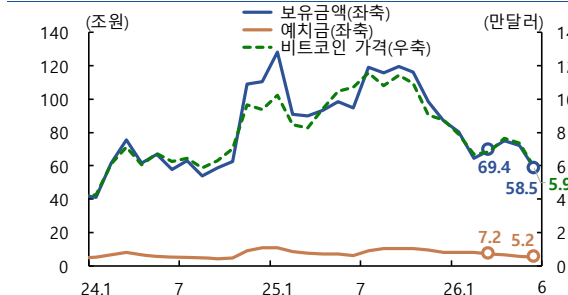
주: 1) 일별 수익률의 60일 이동 표준편차를 통해 산출

자료: 한국은행, CoinGecko, Bloomberg

11.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금액과 거래규모(2026년 6월말 기준)는 투자수요 위축³⁸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보유금액(고객 및 거래소 보유 기준)은 2026년 6월말 58.5조 원, 예치금은 5.2조원으로 3월말(각각 69.4조원, 7.2조원)대비 줄어들었다.^[그림 31] 또한 거래규모(일평균)도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부진에 더해 금년 상반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 영향 등으로 1/4분기 3.7조원에서 2/4분기 2.5조원으로 감소하였고,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비중도 상당폭 하락(USDT 및 USDC 기준, 3월 16.1% → 6월 8.3%)하였다.^[그림 32]

[그림 31]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금액¹⁾ 및 예치금

가상자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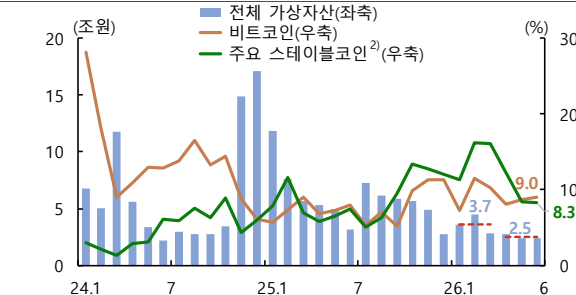


주: 1) 고객 및 거래소 보유 기준

자료: 한국은행, CoinGecko,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

[그림 32]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¹⁾ 및 종류별 거래비중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여 거래 감소세 지속



주: 1) 월중 일평균 기준, 붉은 점선은 분기중 일평균

2) USDT 및 USDC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

³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액(백만달러): 26년 4월 +1,738 → 5월 -2,430 → 6월 -4,706 → 7월 -182 → 8월 +3,288 → 9월^{1-11월} +230

³⁵ 2023년 이후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오던 대표적 DAT(Digital Asset Treasury) 기업인 스트래티지(Stratagy)가 우선주 배당 등을 위해 처음으로 일부를 매도(32 BTC, 6월 공시)한 점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³⁶ 2026년 8월 18일 SEC는 소규모 스타트업 또는 일정 공시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 발행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시 증권법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규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하였다.

³⁷ 2026년 8월 19일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 매입 한도를 기존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 이상으로 증액한다고 발표하였다.

³⁸ 금년 5월 들어 비트코인의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을 하회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은 8월까지 음(-)의 값을 보였다(26년 4월 0.4% → 5월 -0.5% → 6월 -1.5% → 7월 -1.1% → 8월 -0.4%).

<참고 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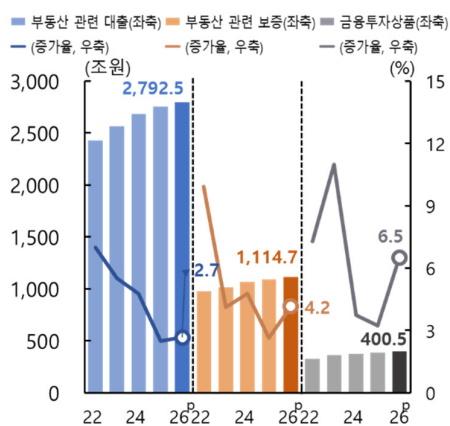
2026년 2/4분기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잠정)³⁹는 부동산 관련 대출 2,792.5조원, 부동산 관련 보증 1,114.7조원, 금융투자상품 400.5조원으로 추산되었다. 부문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을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2.7%)은 2025년말(2.5%)에 이어 소폭 상승하였고, 부동산 관련 보증과 금융투자상품은 각각 4.2%, 6.5%로 2025년말(각각 2.7%, 3.2%)보다 확대되었다.

부문별 구성항목을 보면, 대출의 경우 가계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2.5%(전년동기대비)로 전년말(2.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일반기업 대출은 증가율이 둔화(6.7%→5.4%)되었다. 한편,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은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0.1%→2.0%)되었다. 보증은 가계보증(3.8%→0.8%)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사업자보증(-2.4%→5.7%)이 크게 늘어났다. 금융투자상품은 주택저당증권(MBS) 감소폭이 크게 축소(-11.3%→-3.7%)되고 리츠 운용자산 규모가 증가(18.0%)하였다.

명목GDP대비 비율은 2023년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 들어 GDP 증가 영향으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6년 2/4분기말 부동산 관련 대출이 94.4%(-8.4%p), 보증 37.7%(-3.1%p), 금융투자상품 13.5%(-1.0%p)로 모두 전년말보다 하락하였다.

이처럼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 관리기조와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건설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보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⁴⁰에서 관련 익스포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생산성과 사업성에 기반한 선별적 자금공급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잠재리스크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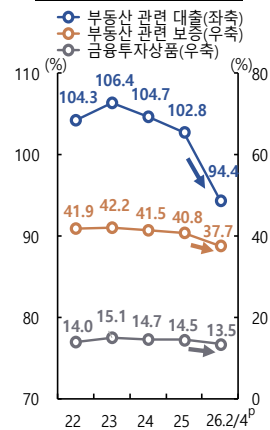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규모¹⁾ 및 증가율²⁾³⁾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부문별 세부 구성

구성	2026년 2/4분기	
	규모 ¹⁾	증가율 ²⁾
부동산 관련 대출	2,792.5	(2.7)
(가계 부동산 대출)	1,365.0	(2.5)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757.3	(5.4)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	633.3	(2.0)
(부동산 PF 대출) ³⁾	156.0	(-8.0)
부동산 관련 보증	1,114.7	(4.2)
(가계보증)	542.3	(0.8)
(사업자보증)	377.3	(5.7)
금융투자상품	400.5	(6.5)
(MBS)	143.6	(-3.7)
(리츠)	127.5	(18.0)

명목GDP⁴⁾대비 비율



주: 1) 기말 잔액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부동산 관련 대출에 포함된 부동산PF 대출의 2/4분기말 수치는 추정치
 4) 당분기 및 이전 3분기 합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

³⁹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란 국내 부동산 부문의 총격이 금융기관, 금융투자자 등 경제주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규모를 의미하며, ①금융기관을 통한 부동산 관련 대출(가계 부동산 대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건설업종의 기업대출, 부동산PF 대출), ②부동산 관련 보증, 그리고 ③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다.

⁴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위원회, 26.8.13일)을 통해 부동산PF에 대한 공적보증 강화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PF 건설사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참고 3> 8월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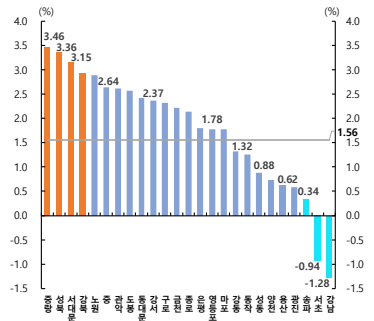
정부는 부동산 대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을 잇달아 발표⁴¹하였다. 이하에서는 금번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여 대책의 영향을 가늠해 보았다.

금번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자금애로 완화,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주택보유 유인을 낮추고, 2027~28년중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여 주택매도를 유도하였다. 또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여 임대인의 보유주택으로의 실거주 전환 또는 매도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한편, 부동산PF 보증·자금지원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도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 공공택지 착공기간 단축(68개월→37개월)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 물량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보유세·양도세제 개편으로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세부담 증가폭이 차등화되면서, 대책 전후 시장 반응도 주택가격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과세 강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가주택은 매도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폭 둔화 또는 하락(26.7.27일대비 강남 -1.28%, 서초 -0.94%, 송파 0.34%)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주택매수 수요가 이어지면서, 높은 가격상승률(중랑구 3.46%, 성북구 3.36%, 서대문구 3.15%, 강북구 2.92% 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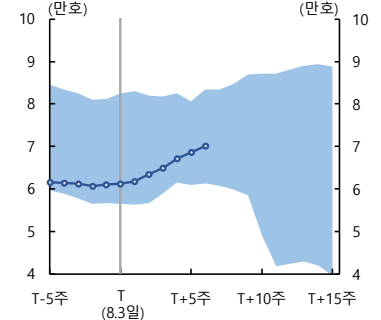
금번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 흐름을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하면, 매물증가 규모 및 가격 상승세 둔화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대책 발표 후 6주 경과 시점 기준으로 보면, 금번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7.0만호로 과거 대책 발표 후 평균(7.0만호) 수준이고,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16%로 과거 평균(0.10%)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다.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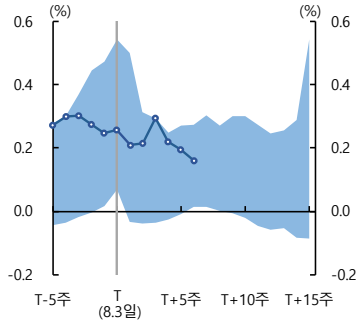
주: 1)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7.27일)대비
9.14일 변동률
2) 점선은 서울의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요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 매물¹⁾²⁾



주: 1) 음영은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전후의 매매가 증가율 및 매물 분포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18.9.13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일),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24.8.21일) 등과 비교
3) 계약일 기준(9.17일 초)

주요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¹⁾²⁾³⁾



⁴¹ 「2026년 세계재판안」(재정경제부, 26.8.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위원회, 26.8.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교통부, 26.8.13일)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금번 대책에 따른 보유 유인 축소로 고가주택, 비거주주택 등에 대한 투자 수요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급 대책 이후 주택 공급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가격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거주 요건 강화, 2027~28년중 다주택 가구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의 대책은 기존 주택의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신규주택이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번 대책의 효과는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매도 유인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⁴² 향후 5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1%(25년 이후 전국 아파트 기준) 또는 3.5%(수도권 아파트 기준)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기간인 2027년중 주택 매도 유인이 있는 다주택 가구의 비중은 각각 30.4%, 19.8%로 추정되었다. 반면, 기대 상승률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 8.2%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매도 유인이 있는 가구 비중이 8.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 상황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될 경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중·저가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년중 가계대출은 주택매매거래 증가(주택관련대출), 주식투자자금 수요 확대(기타대출)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해오다 8월 들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규모가 총량한도에 다다르면서 증가세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⁴⁴ 다만 서울 외곽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총량목표 상향 조정(1.5% → 3.0%)으로 주택관련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당국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가격 기대심리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⁴² ① 2027년중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은 뒤, 매도대금을 국고채(5년물) 금리로 운용하는 경우와, ②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높아진 보유세를 부담하되 임대소득(전월세전환율x전세가율로 산출한 임대수익률 3% 적용, 2025년 이후 수도권 평균) 및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자본이득(미실현)을 얻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2030년 시점의 순자산을 산출·비교하였다. 전자가 후자를 상회하는 가구를 매도 유인이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⁴³ 분석결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별 매도 유인이 있는 다주택가구 비중은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기대 주택가격 상승률(연평균, %) ¹⁾	1.1 (전국 기준)	3.5 (수도권 기준)	8.2 (서울 기준)
매도 유인이 있는 다주택가구 비중(%)	30.4	19.8	8.9

1) 2025년 이후 전국·수도권·서울 기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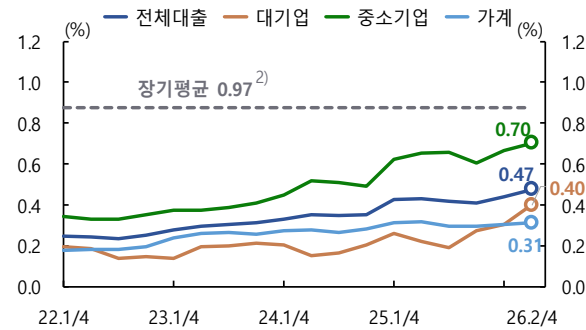
⁴⁴ 가계대출 총량목표 상향 조정 발표 이후 금융기관별로 가계대출 총량 배분 및 세부 운용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나타난 측면이 있다.

3. 금융기관

12. 일반은행⁴⁵의 자산건전성은 완만하게 저하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6년 2/4분기말 0.47%로 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말(0.44%)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장기평균(2011~26년 2/4분기 0.9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⁴⁶[그림 33]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은 하락한 반면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및 제조업은 상승하였다.[그림 34]

[그림 33] 일반은행 차주별¹⁾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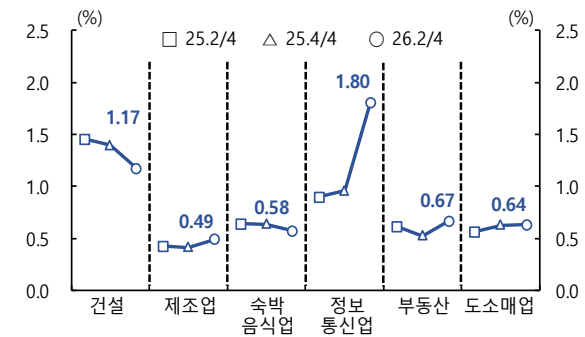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2) 2011년 1/4분기 ~ 2026년 2/4분기 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34] 일반은행 주요 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¹⁾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및 제조업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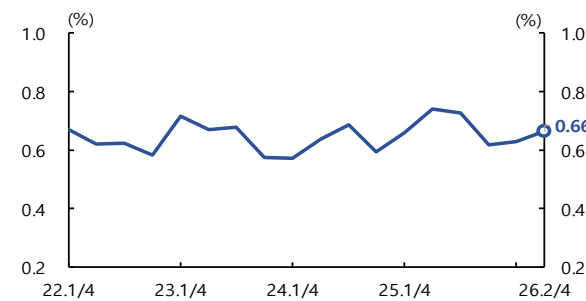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3.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저하되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2026년 2/4분기 0.66%로 전년동기(0.74%)대비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35] 이는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예대금리차(잔액 기준) 및 순이자마진이 모두 확대되었으나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2.5조원 손실(전년동기 3.2조원 이익)로 전환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36]

[그림 35] 일반은행 총자산순이익률¹⁾²⁾

전년동기(0.74%)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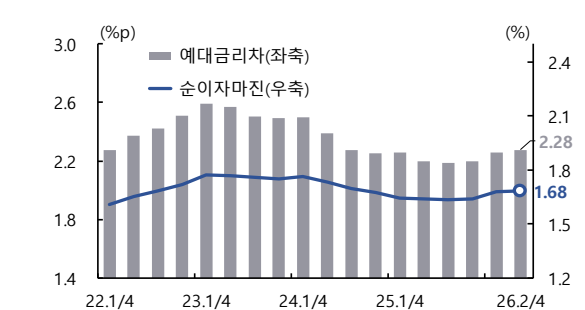
주: 1) 대손준비금 전입전, 기간중

2) 누적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36] 일반은행 순이자마진¹⁾ 및 예대금리차²⁾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 모두 소폭 확대



주: 1) (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 / 이자 수익자산 평균

2) 예금은행 잔액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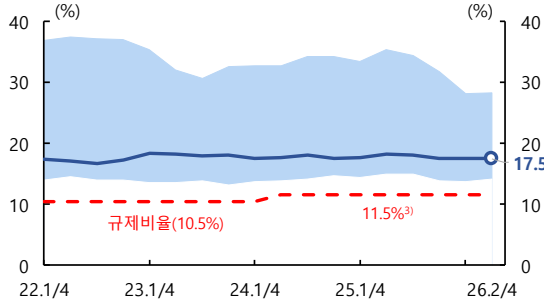
⁴⁵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과 지방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⁴⁶ 다만 지방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3%(전분기말대비 +0.11%p)로, 시중은행(0.41%)을 크게 상회한다.

14.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6년 2/4분기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7.5%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규제비율 11.5%, D-SIBs⁴⁷ 12.5%). [그림 37] 대손충당금 적립비율(2026년 2/4분기말 132.7%)은 전분기말(143.3%)대비 하락(-10.6%p)하였다. [그림 38]

[그림 37] 일반은행 BIS기준 총자본비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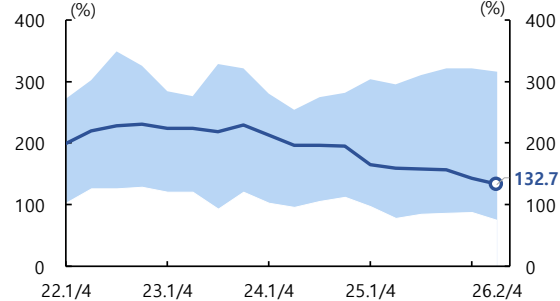
전분기(17.5%) 수준 유지



주: 1) 기말 기준
2) 토스뱅크(21년 10월 출범)는 2024년부터 적용
3) 2024년 5월 이후 경기대응완충자본(1%)이 규제비율에 추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38] 일반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비율¹⁾²⁾³⁾

전분기(143.3%)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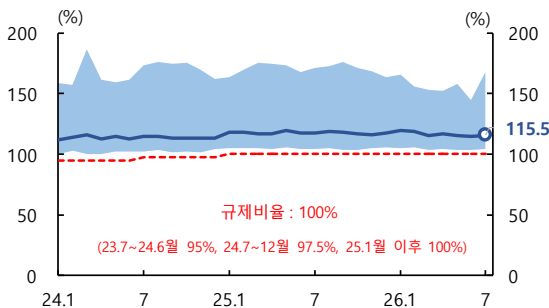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2) 기말 기준
3) 음영은 토스뱅크(21년 10월 출범) 제외 분포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5.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6년 7월 LCR은 115.5%로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림 39], 외화 LCR⁴⁸도 고유동성자산 확대(+5.8조원)로 2026년 3월(167.5%)보다 상승한 179.3%를 기록하였다(규제비율 80%). [그림 40]

[그림 39] 일반은행 통합¹⁾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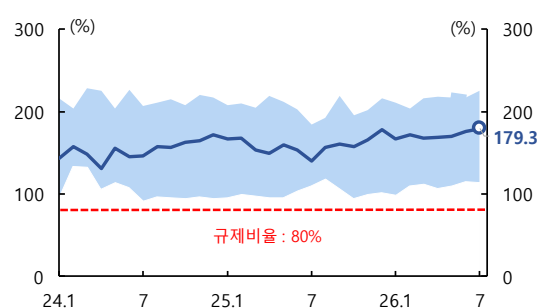
규제비율(100%) 상회 지속



주: 1) 월 평잔 기준
2)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일반은행 분포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0] 일반은행 외화¹⁾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026년 3월(167.5%)대비 상승



주: 1) 월 평잔 기준
2) 광주·제주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은 외화부채 비중이 낮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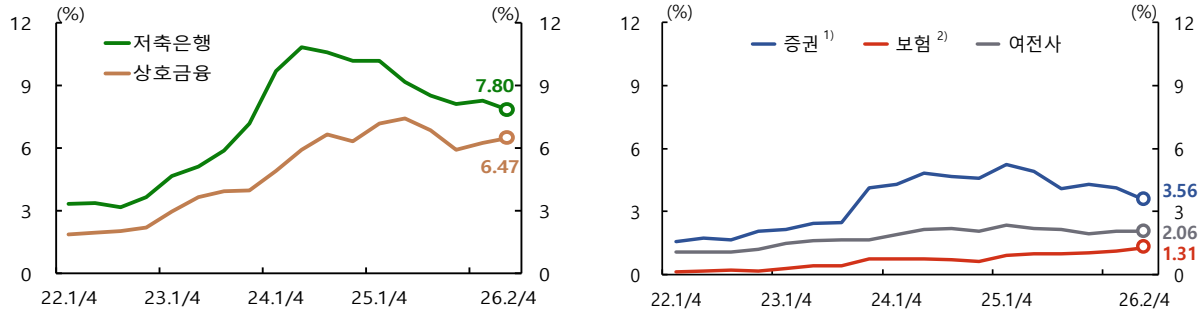
⁴⁷ 2026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적용된다.

⁴⁸ 외화 LCR은 바젤Ⅲ 규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에 도입되었다.

16. 비은행의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업권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2026년 1/4분기말 8.27% → 2/4분기말 7.80%) 및 증권회사(4.13% → 3.56%)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지속,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부실채권 매·상각이 늘어나면서 전분기에 비해 하락⁴⁹하였다. 반면 상호금융(6.25% → 6.47%) 및 보험회사(1.13% → 1.31%)는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대출 건전성 저하 등으로 전분기대비 상승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2.07% → 2.06%)의 경우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41]

[그림 41] 비은행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저축은행·증권회사는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보험회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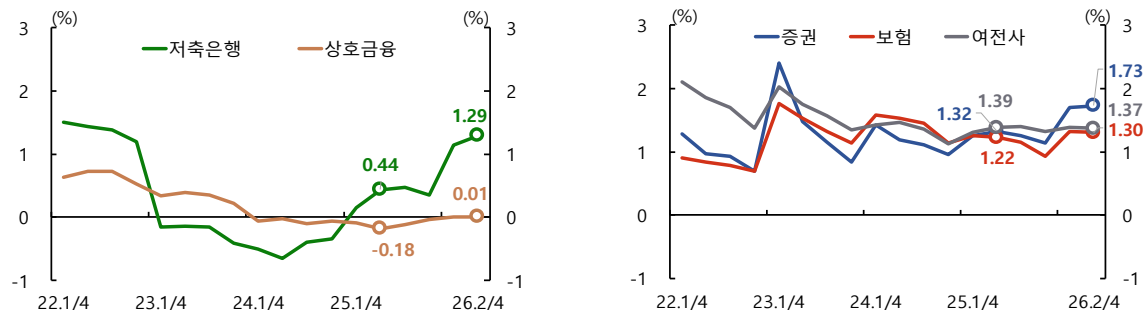


주: 1) 미수금 제외 기준 2) 보험회사는 보험약관대출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7. 비은행 총자산순이익률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전년동기대비)은 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관련 수익 증가, 대손상각비 감소 등에 힘입어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상호금융도 예수금 축소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전분기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관련 수수료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 반면, 보험회사는 보험손익 감소에도 투자손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한편 여전사는 캐피탈사의 투자금융 관련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판매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었다. [그림 42]

[그림 42] 비은행 업권별 총자산순이익률¹⁾

여전사를 제외하고 저축은행·증권회사 등 대부분 업권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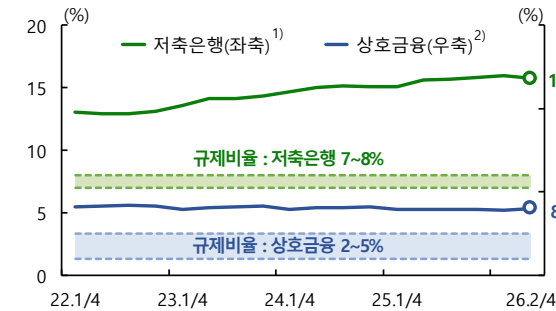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⁴⁹ 다만, 과거 장기평균(2015년 1/4분기~2026년 2/4분기, 저축은행 6.70%)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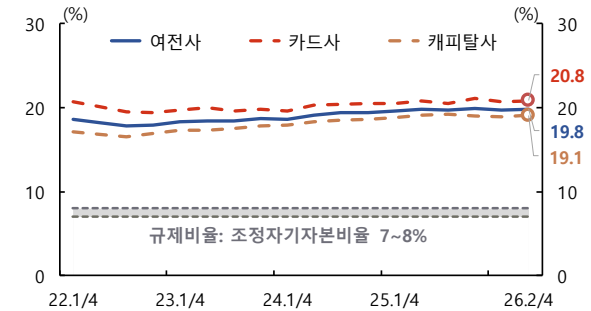
18. 비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자본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본비율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43] 여전사도 카드사와 캐피탈사 모두 감독기준보다 크게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였고^[그림 44], 증권회사는 실적개선에 따른 순이익의 증가로 자본비율이 전분기대비 크게 높아졌다.^[그림 45] 보험회사는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보유잔액 확대⁵⁰로 주가변동 위험 관련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전분기대비 하락하였다.^[그림 46]

[그림 4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본비율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높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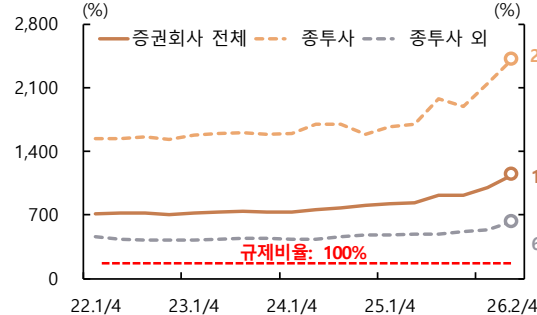
주: 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 (자산 1조원 이상은 8%)
2) 순자본비율,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4]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¹⁾
카드사와 캐피탈사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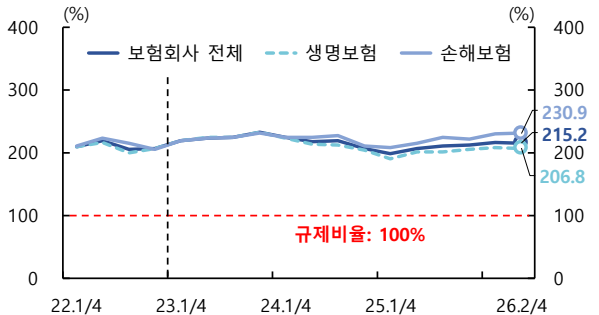
주: 1)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8%(캐피탈사 7%, 신용카드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5] 증권회사 순자본비율(NCR)¹⁾
증권회사 자본비율은 전분기대비 큰 폭 상승



주: 1)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6]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¹⁾²⁾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은 전분기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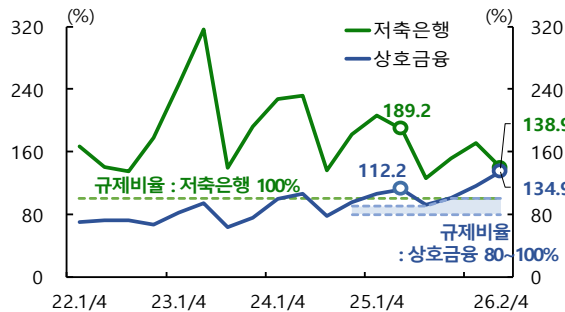
주: 1) 가용자본/요구자본, 2022년 4/4분기 이전은 RBC, 2023년 1/4분기 이후부터는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2)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⁵⁰ 보험회사 주식 보유잔액 및 비중(총자산대비): 25년 4/4분기말 80.2조원(5.9%) → 26년 1/4분기말 107.9조원(8.0%) → 2/4분기말 207.1조원(14.1%)

19. 비은행의 유동성은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저하되었다. 유동성비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은 규제 강화⁵¹ 및 유동성자산 인정범위 변경⁵² 등으로 상당폭 상승한 반면, 저축은행은 현금 및 예치금 등 유동성자산이 감소한 데다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 증가 등으로 유동성부채가 늘어나면서 낮아졌다.^[그림 47] 여전사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채권 만기도래 집중 등으로 유동성부채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다.^[그림 48] 증권회사는 투자자 예탁금 유입과 단기 시장성 자금조달 지속⁵³ 등에 따른 유동성부채 증가 영향으로 소폭 낮아졌으며^[그림 49], 보험회사도 금리 상승에 따라 국공채⁵⁴를 중심으로 유동성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다.^[그림 50]

[그림 47]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비율¹⁾²⁾

저축은행은 전년동기대비 하락, 상호금융은 상당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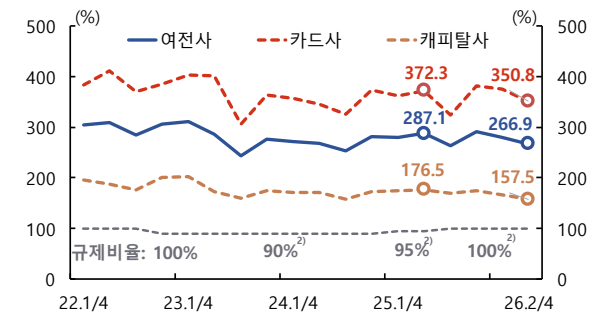


주: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2) 상호금융은 규제비율 100%(자산 300억원 미만은 80%, 자산 300~1,000억원 미만은 90%)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8]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비율¹⁾

채권 만기도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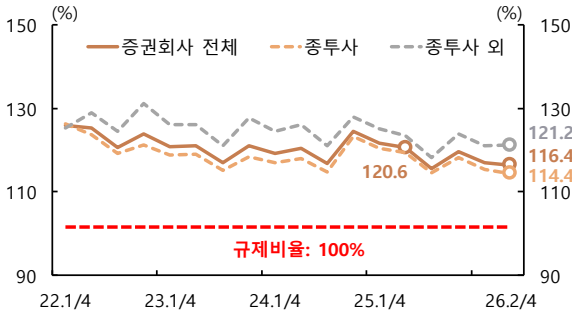


주: 1)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 2022.12월~2024.12월중 90%, 2025.1~6월중 95%, 7월부터 100%를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9] 증권회사 유동성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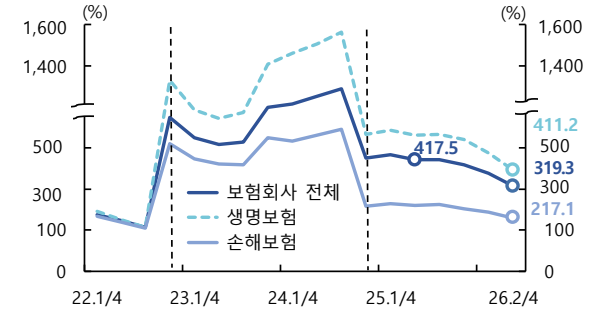
유동성부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



주: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50] 보험회사 유동성비율¹⁾

국공채 등 유동성자산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하락



주: 1) 유동성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⁵¹ 상호금융은 2024년 12월 29일(새마을금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유동성비율 규제(90% 이상, 자산 300억원 미만은 80% 이상)가 시행되었다. 단,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금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규제비율이 100%로 강화되었다.

⁵²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새마을금고감독기준」 개정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상호금융의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중앙회 정기예치금이 유동성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⁵³ 2026년 2/4분기말 증권회사 단기시장성 부채(RP매도, CP, 단기사채 등)는 309.8조원으로 전년동기(238.7조원)대비 29.8% 증가하였다.

⁵⁴ 2026년 2/4분기말 보험회사 국공채 보유 금액은 298.4조원으로 전년동기(334.6조원)대비 10.8% 감소하였다.

<참고 4> 카드사 주요 리스크 요인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시장성 자금에 의존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성 리볼빙) 증가⁵⁵ 등으로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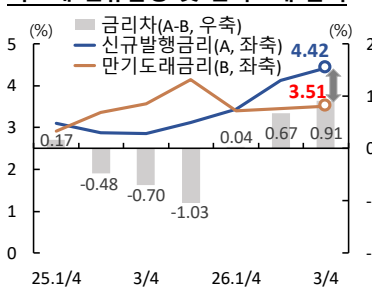
먼저, 카드사는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카드채의 차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3% 중반 금리로 조달한 카드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신규 발행금리는 2026년 7~8월중 4% 중반까지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조달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커진 데다 금리상승기 장기물에 대한 투자수요 약화 등의 시장여건 변화로 단기물 발행 비중이 크게 상승⁵⁶하였다. 이에 더해 만기도래 규모⁵⁷도 과거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차환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카드사 연체율⁵⁸은 2025년말 부터 1%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연체액 감소보다는 부실채권 매·상각 확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금년 들어 증가하고 있는 카드대출은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20%)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상승하고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향후 금리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카드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경우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카드사의 수익 기반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된 수익원인 신용판매 부문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늘려온 카드대출의 경우 부실위험 증대로 대손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총자산순이익률(ROA)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간편결제 등 대체 서비스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에 따른 카드대출 취급 제약 등으로 영업자산 증가가 둔화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확대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카드사의 복원력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수익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시 조달비용 증가와 자산건전성 저하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복원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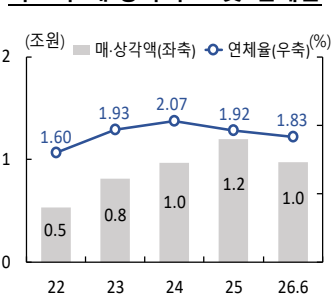
카드채 신규발행 및 만기도래 금리¹⁾²⁾



주: 1) 해당 기간중 평균 발행금리 및 만기도래 카드채 평균 발행금리
2) 26.3/4분기 발행금리는 7~8월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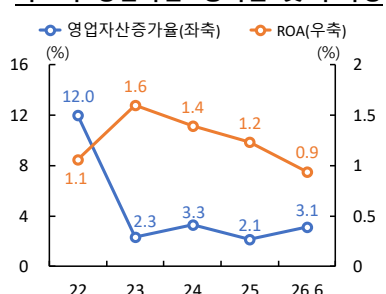
카드사 매·상각액¹⁾²⁾ 및 연체율²⁾



주: 1) 분기 평균 매·상각액 기준
2) 카드자산(판매신용 제외) 및 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카드사 영업자산¹⁾ 증가율 및 수익성



주: 1) 카드자산, 할부·리스자산, 대출채권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⁵⁵ 카드대출 잔액(전업사 기준): 24년말 45.8조원 → 25년말 44.9조원 → 26년 6월말 46.0조원

⁵⁶ 카드채 만기 2년물 이하 발행비중: 25년 상반기 3.6% → 하반기 19.7% → 26년 상반기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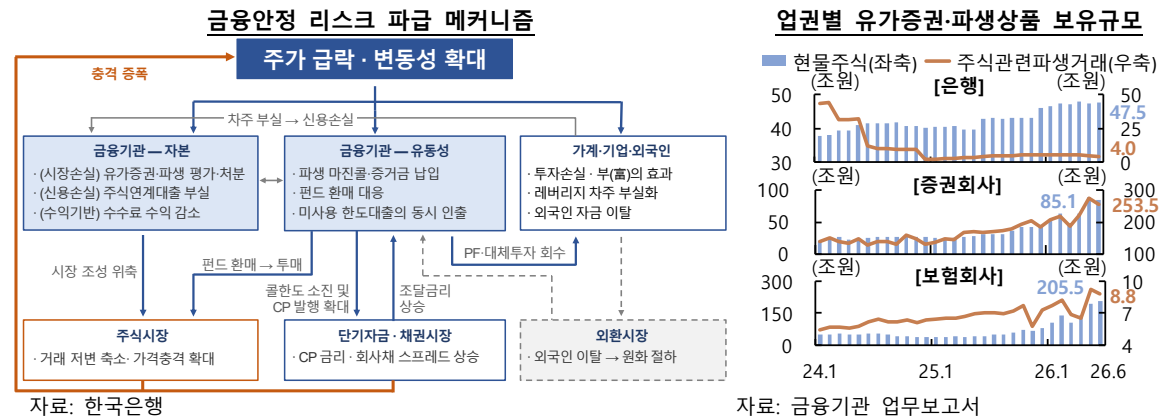
⁵⁷ 카드채 만기도래액: 26년 하반기 12.6조원 → 27년 상반기 16.2조원 → 하반기 15.1조원 (20~25년중 반기평균 10.5조원)

⁵⁸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여력 저하와 여타 비은행취급기관의 신용대출 축소에 따른 저신용·저소득 차주 유입으로, 카드사 연체율은 25년 1/4분기말 2.34%(14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하였다.

<참고 5> 증시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KOSPI가 지난 6월 9,115포인트까지 상승한 후 7월 30일 5,594포인트까지 급락했음에도 이후 주가가 반등하며 단기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등에서는 뚜렷한 불안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 CP 금리 스프레드의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함께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실물경기 충격을 동반했던 과거와 달리, 금번 변동성 확대는 AI 수익성 기대 변화와 반도체주 쏠림에 주로 기인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주가 급락과 변동성 확대는 주식 관련 자산을 보유한 가계·기업 및 금융기관에 일차적인 투자손실을 초래한다. 다만, 최근 주가 급락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주가가 대폭 상승한 이후 발생한 만큼, 경제주체들이 그간 축적된 자체 재무 여력으로 일시적 자산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주가 회복이 지연되거나 추가 하락하면서 그 여력이 소진될 경우 가계·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직접적 시장손실에 신용손실, 영업 기반 약화(수수료 수익 감소 등)가 더해져 자본비율이 저하되는 한편, 투자자금 이탈과 파생상품 마진콜 등으로 유동성 여력도 축소된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차환 리스크 확대, 공통 익스포저 등을 통해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증시 불안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주가 하락과 함께 충격 지속의 영향을 점검하고자 2026년 3/4분기 전반에 걸쳐 주가 하락이 진행되고(6월말대비 -40% 수준) 회복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⁵⁹ 금융기관 자본적정성과 단기 시장 불안(금융불안지수, FS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다.

시산 결과,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은 기준시점(6월말)대비 하락하나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여 손실흁수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 감소는 주로 시장손실에 기인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 업권에서 주식, 주식형 수익증권, 파생상품 평가 및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특히 증권업에서는 수수료수익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를 반영하더라도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 추정치는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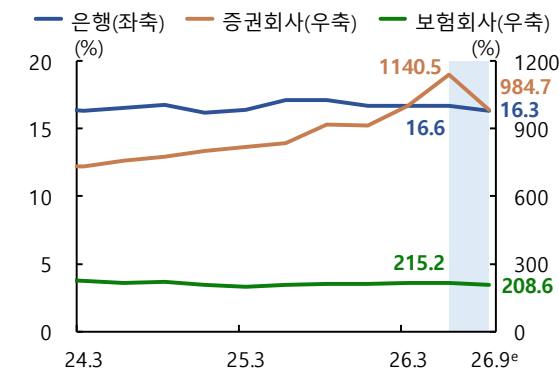
⁵⁹ 주가가 2008년 이후 60영업일 내 KOSPI 최대 낙폭(글로벌 금융위기 41%, 26년 7월 39%)만큼 하락하고 주가 변동성이 6월말대비 1.5배 확대된다고 가정하였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자본비율의 분모) 축소가 손익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였고, 증권회사는 주가 상승기에 확보한 자본여력이 완충 역할을 하였다.

FSI는 지난 7월 주가 단기 급락시 1.2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증시 불안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상승폭이 3.7포인트⁶⁰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식시장 지표 악화가 직접 반영된 가운데 불안이 신용 및 심리 지표로 파급되는 효과가 포착되면서 연체율 상승,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물경제 개선세가 지속되고 기업 펀더멘털도 건조한 상황에서⁶¹ 증시 변동성 확대만으로 FSI에 나타난 금융불안 수준이 위기 상황 임계치(24)를 상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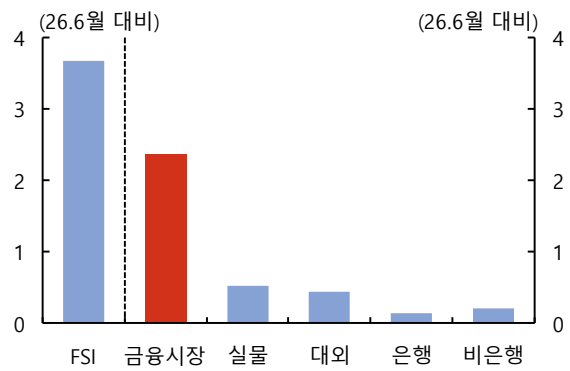
종합하면, 증시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융 취약성이 높은 상태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반도체 등 IT 업황 부진, 대외 금융여건 악화 등을 동반할 경우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식·파생상품 포지션 쏠림과 헤지 현황을 점검하고 차주의 투자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시나리오 충격 발생시 업권별 자본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나리오 충격 발생시 주요 FSI 변동 요인



자료: 한국은행 시산

⁶⁰ 이는 08년 이후 분기 변동폭의 상위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⁶¹ 8월말 MSCI KOREA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이 6월말대비 14% 상승하는 등 기업이익은 건조하다.

⁶² 한편 FVI는 시나리오상 충격 발생시 주가 하락에 따른 금융자산 부문의 취약성 완화 등으로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46.3으로 26.2/4분기 46.5보다 0.2포인트 하락)

4. 대외부문

20.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다가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주가 급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도 등으로 1,555.8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년 7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 확대 및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완화 등 외환시장 수급개선, 건조한 경제 성장세 전망 등의 영향으로 1,3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였다.^[그림 51] 한편 환율 변동성은 상반기중 확대되었다가 하반기 들어 축소되었다.^[그림 52]

[그림 51] 원/달러 환율 및 미 달러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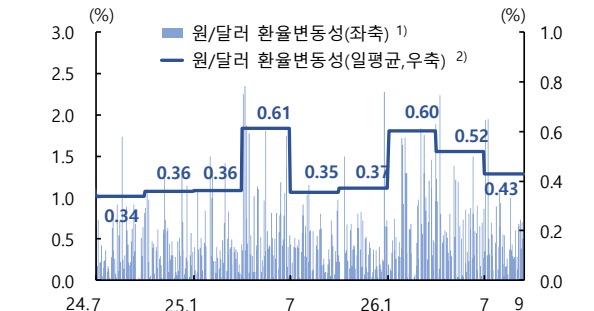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상승 후 큰 폭 하락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52]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환율 변동성은 하반기 들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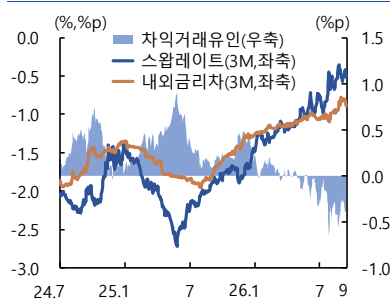


주: 1) 15:30분 종가 기준 전일대비 변동률(절대값) 2) 분기평균
자료: 한국은행

21. 외화자금시장은 양호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속되었다. 차익거래유인은 상반기중 역외 NDF 순매입⁶³ 지속, FTSE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자금 유입 등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7월 이후에는 기업의 선물환 순매입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그림 53]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 차입 단기 가산금리는 차입만기 장기화 등으로 8월중 일시 상승하였으며, 중장기 가산금리는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국책은행 채권 발행 비중이 축소되면서 8월중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54] 일반은행 CDS 프리미엄은 2026년 3월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미국-이란 중전협상 기대 등으로 하향 안정화되었다.^[그림 55]

[그림 53] 차익거래유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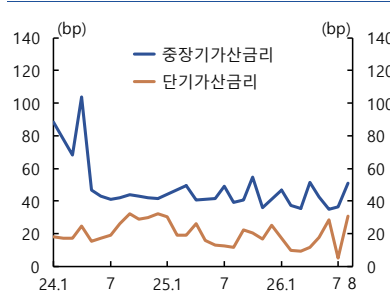
차익거래유인은 마이너스폭 확대



주: 1) 내외금리차-스왑레이트
자료: 한국자금중개, 금융투자협회

[그림 54]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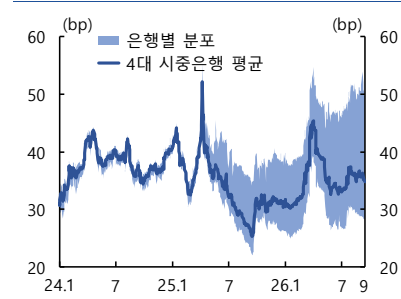
대체로 양호한 흐름 지속



주: 1) SOF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 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익일물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그림 55] 일반은행¹⁾ CDS 프리미엄²⁾

3월 들어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향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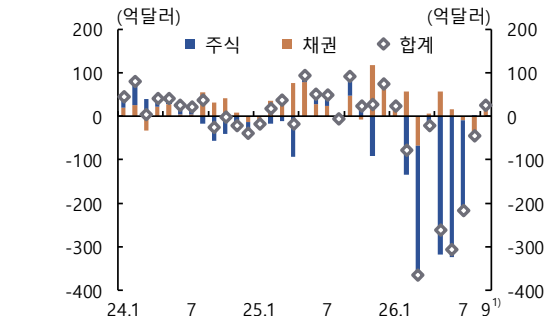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⁶³ 비거주자에게 NDF를 순매도한 거래상대방 은행은 선물환 매도초과 포지션이 발생하게 되고, 동 포지션 해소를 위해 현물환시장에서 미달러화를 매입하는 한편, 외화자금시장에서 미 달러화를 공급(Sell&Buy)한다.

22. 금년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 중심으로 순유출되었다. 주식자금(26.1.1~9.9일 중 -1,310.2억달러)은 상반기 국내주가 상승에 따른 보유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으로 인해 큰 폭 순유출되었으나, 8월 이후에는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주식 매도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순유출 폭이 축소되었다. 채권자금(1.1~9.9일 중 +65.1억달러)의 경우 4월 WGBI 편입 등에 힘입어 순유입 흐름이 이어지다가 7월 이후에는 단기 차익거래유인 역전폭 확대⁶⁴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 전환되었다. [그림 5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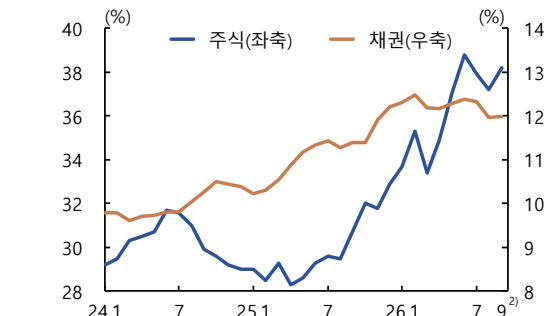
[그림 56]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 중심으로 큰 폭 순유출



[그림 57] 외국인 국내증권 보유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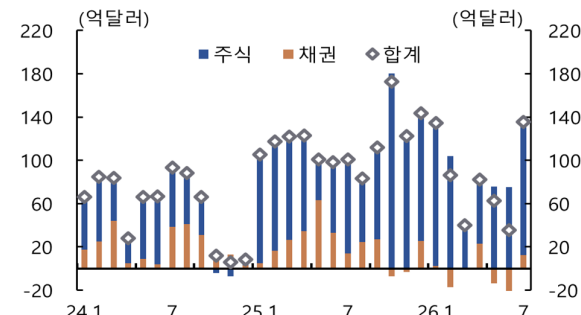
금년중 주식 보유비중은 상승, 채권 보유비중은 하락



23.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을 중심으로 순투자 흐름이 이어졌으나 채권은 순회수되었다. 주식자금(26.1~7월중 608.9억달러)은 3월중 중동상황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등으로 순투자가 둔화되었다가 4월 이후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미국 반도체·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순투자 규모가 다시 확대되었다. 채권자금(-32.0억달러)은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순회수되었다. [그림 58,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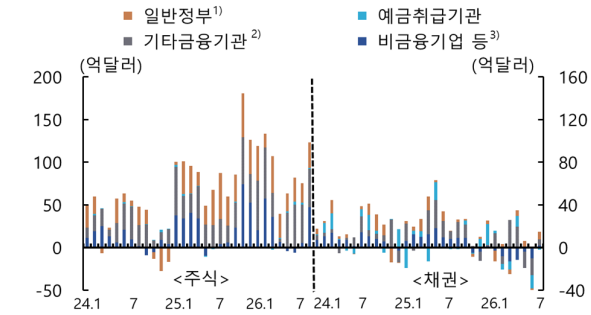
[그림 58] 거주자 해외증권투자¹⁾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순투자 흐름을 지속



[그림 59] 주체별 해외증권투자

투자자들은 주식 순투자 지속, 채권 대체로 순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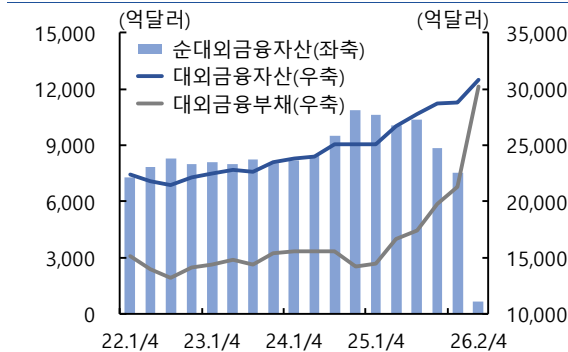


⁶⁴ 단기(3개월물) 차익거래유인(일평균) : 26년 5월 -7bp → 6월 -17bp → 7월 -26bp → 8월 -39bp

24.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대외금융자산(2026년 2/4분기중 +2,017억달러)은 미국 주가(S&P500 +14.9%) 상승에 따른 거주자 보유주식 평가액(+1,462억달러) 증가 등으로 늘어났으며, 대외금융부채(+8,912억달러)도 국내 주가(KOSPI +67.8%)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보유주식 평가액(+8,481억달러)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26.1/4분기말 7,536억달러 → 2/4분기말 640억달러)은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하였다.^{65, 66} [그림 60] 한편, 확정 부채인 대외채무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장기외채(+235억달러)는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단기외채(+150억달러)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와 연계된 예수금 증가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외채/대외채무 비중 및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각각 0.7%p 및 3.1%p 상승하였다. [그림 61, 62, 63] 단기외채 관련 지표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외환보유액으로 감내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⁶⁷

[그림 60] 순대외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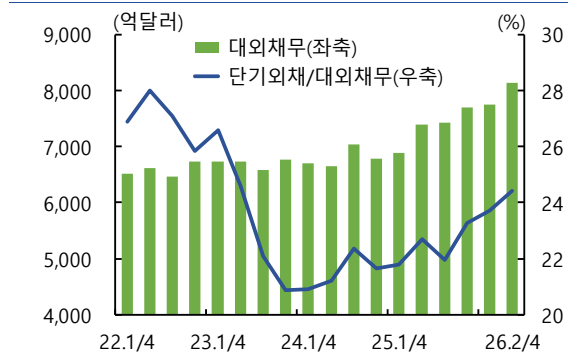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대비 큰 폭 감소



자료: 한국은행

[그림 61] 대외채무 및 단기외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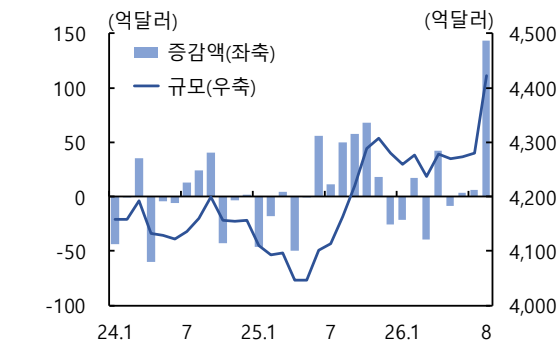
단기외채/대외채무 비중은 전분기대비 상승



자료: 한국은행

[그림 62] 외환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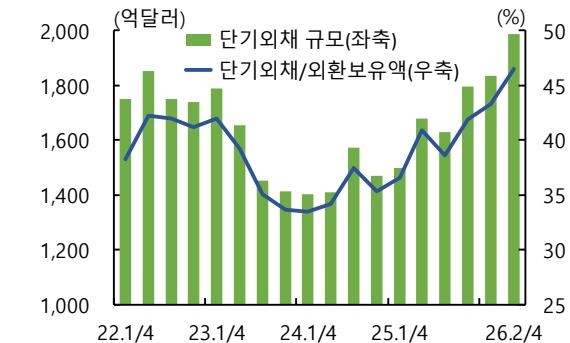
외환보유액은 8월중 큰 폭 증가



자료: 한국은행

[그림 63]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전분기대비 상승



자료: 한국은행

⁶⁵ 다만, 금번 순대외금융자산 감소는 확정적인 상환의무가 없는 지분성 대외금융부채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과거 외환위기시 문제가 되었던 대외채무 증가와는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지급능력 평가는 순대외채권 및 단기외채 비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⁶⁶ 순대외채권은 2022년 2/4분기 이후 평균 3,723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6년 2/4분기에도 소폭 증가하였다(26년 1/4분기말 3,655억달러 → 2/4분기말 3,678억달러, +23억달러).

⁶⁷ IMF의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 26.7월)는 우리나라가 스트레스 상황에도 광범위한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화유동성 완충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참고 6> 최근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부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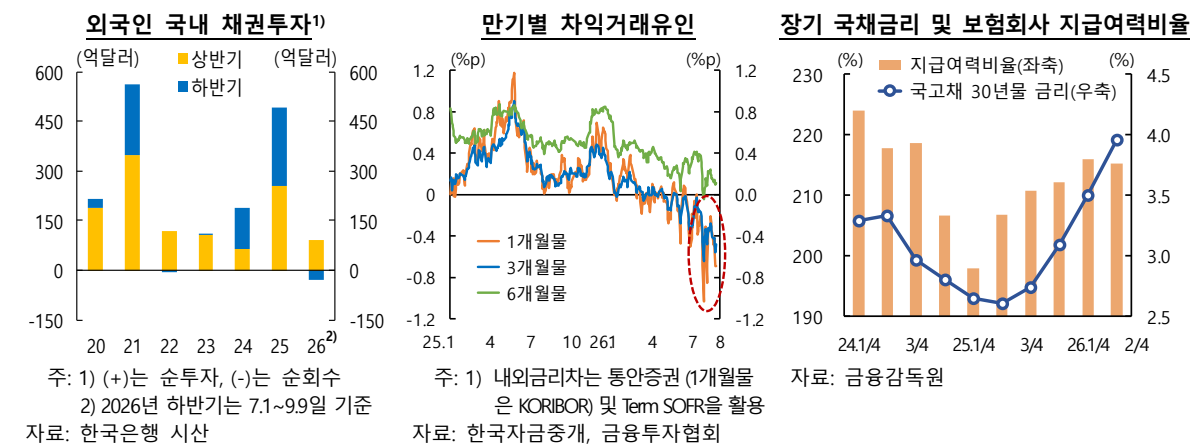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투자자는 83.2억달러로 전년동기(+253.8억달러)대비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7월중 순회수로 전환(-9.6억달러)된 이후 8월 들어서는 순회수폭이 확대(-45.3억달러)되는 양상이다. 외국인 채권투자 부진 배경으로는 ① 차익거래유인(내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의 차이) 역전폭 확대, ② 국내 보험회사의 채권선도(본드포워드) 매입 축소, ③ 대내외 시장금리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차익거래유인은 금년 5월 이후 마이너스(-)로 역전되기 시작하였고 7월 들어서는 역전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익포지션 구축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내채권 매입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기존 차익(환헤지) 포지션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반대거래⁶⁸를 통해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내채권 매각 유인이 커졌다.

또한, 최근 국내 보험회사의 채권선도 매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해외 상업은행의 초장기국채 매수세도 위축되었다.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금리하락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자산 듀레이션을 크게 늘려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지급여력비율⁶⁹이 개선됨에 따라 최근에는 추가적인 듀레이션 확대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 채권선도 거래상대방인 해외 상업은행도 초장기 현물채권 매입을 줄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으로 장기성향 투자자의 채권매입도 둔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폭도 주요국대비 컸다. 그 결과 보유수익 측면에서 국고채 투자 유인은 높아졌으나 향후 기준금리 인상폭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엇갈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리 흐름을 관망하면서 매수시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위축된 원인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우려보다는 외화자금수급 여건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다만 당분간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차익거래유인 역전 흐름, 시장금리 상승세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 투자자의 채권투자 유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글로벌 채권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변화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⁶⁸ 여기서 반대거래는 ①보유 국내채권을 중도 매각하고 ②수취한 원화자금을 기존 계약보다 더 높은 가격(스왑레이트)으로 스왑 매도하여 외화로 전환한 이후 ③이를 해외채권 등에 투자하거나 외화차입을 상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⁶⁹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부채 듀레이션은 자산 듀레이션보다 크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자산보다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액이 더 크게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의 증가로 이어진다.

5. 금융제도 및 정책

25. 정부는 주택 수급불균형 완화와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⁷⁰ 동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아래 청년 등 실수요 부문에 대한 선별적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6.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PF 보증·자금지원 확대(現 26.3조원→47.8조원+ α),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한시적 확대(90~95%→100%) 등을 통해 정상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캠프 PF정상화 펀드(3조원),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10조원)를 통해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⁷¹,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시행 유예(2027년→2029년)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27. 이와 함께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적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현행 LTV·DSR 규제와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제한, 1주택자 보증비율 축소(-10%p),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⁷²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하기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유형 및 위험가중치를 확대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Sectoral System Risk Buffer)⁷³도 도입한다. 한편 청년 주거지원 3중 세트(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⁷⁴하며,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는 등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8. 한편, 2026년 7월 16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과열을 진정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기존 대용증권 포함 1천만원에서 현금만 인정하는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고의·중과실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괴리율 관리 체계를 개선⁷⁵하고 사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였다. 한편 시장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매매수량단위 상향, 과도호가부담금 적용을 통한 거래비용 부담 증대, 긴급 시장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⁷⁶

⁷⁰ 같은날 공급대책인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⁷¹ 이주비대출 LTV 심사시 당초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했던 방식에서 종전자산평가액 및 종후자산평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⁷² 일시적인 소득 증가를 이용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최근 다년간 평균소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⁷³ 가계부채/GDP 비율이 일정 수준(예: 80%) 상회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등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⁷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당초 미혼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부부 합산 기준) 이하였으나, 2026년 10월부터 신혼부부도 부부중 1인의 연소득(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⁷⁵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⁷⁶ 자세한 내용은 「단일종목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금융위원회, 26.7.28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재정경제부, 26.7.29일) 참조

29. 금융당국은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통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⁷⁷하였다. 주요 내용은 토큰증권을 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 금융상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7년 2월부터 1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사모사채, 신탁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를 토큰화한다.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조각투자 모범규준⁷⁸을 마련하여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실사건 연계자산 등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혁신적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발행·유통 공시, 1인당 청약한도 설정, 이익상충 방지 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장외거래 중개는 기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되, 인프라적 중요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제한하였다. 이외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⁷⁹ 등록 요건,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⁸⁰ 등도 제시하였다. 금융당국은 9월말까지 하위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1단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증권사 등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0. 정부는 금융권의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6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자율 규제로서, AI를 업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임직원에게 최종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안정성·보안 등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정부는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안 목적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⁷⁷ 2026년 2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발표된 토큰증권 정책 방향은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⁷⁸ 그간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영이 이루어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모범규준으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마련할 계획이다.

⁷⁹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기관인 계좌관리기관은 통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만 가능하였으나,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도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투자자 재산권 보호 및 증권 발행 및 유통의 안정성 등을 위해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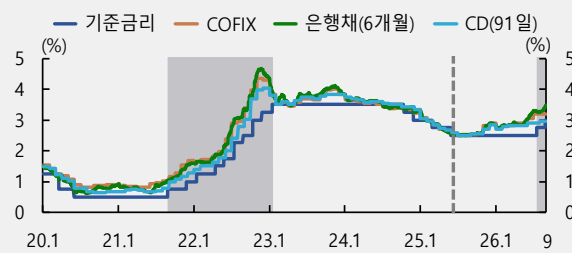
⁸⁰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해 분산원장 심사기준을 표준화하고, 오류·장애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였다.

Ⅲ. 주요 이슈 분석

이슈 1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 금융안정 상황 점검

1. 한국은행은 2026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지표금리도 추가로 상승하고 있다.^[이슈 1-1]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과 금융기관의 신용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함으로써 금융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슈 1-2] 이하에서는 금리 인상이 금융취약성, 차주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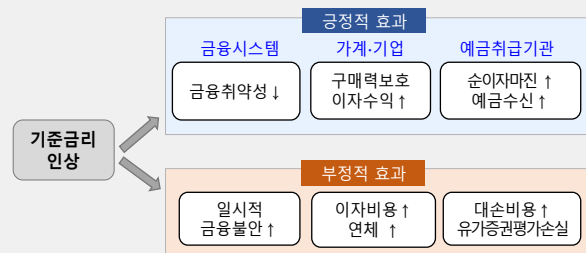
[이슈 1-1]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지표금리¹⁾²⁾



주: 1)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으로 활용, 회색 음영은 금리 인상기
2) 점선은 지표금리 상승세 전환기(25.8월)

자료: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이슈 1-2] 기준금리 인상시 금융안정 측면의 파급효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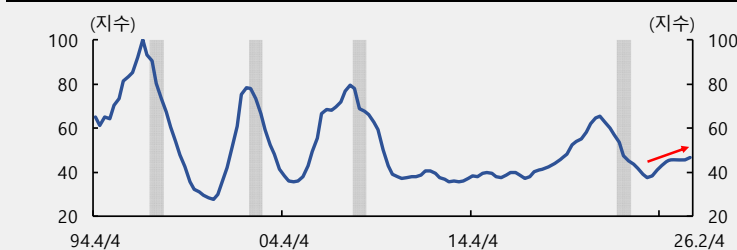
주: 1) 예금취급기관 기준

자료: 한국은행

2.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취약성을 완화⁸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FVI가 과거 주요 금융불안 상황에 앞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려^[이슈 1-3]할 때, 금번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금융취약성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여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리 인상은 차입유인 및 위험선호를 약화시켜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이후 FVI는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슈 1-4]

[이슈 1-3] 금융취약성지수(Financial Vulnerability Index)¹⁾

과거 주요 금융불안 상황에 앞서 누증, 최근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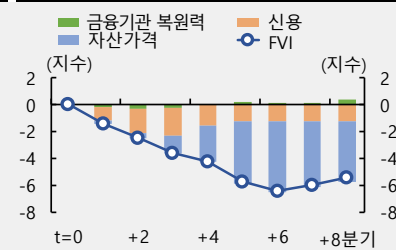
주: 1) 회색 음영은 각각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단기자금시장 불안 시점

2) 과거(10년, 17년 및 21년) 기준금리 인상 시작 시점(t=0) 이후 FVI 수준과 각 부문별 누적 변동 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이슈 1-4] 과거 금리 인상기 FM 부문별 변화²⁾

시차를 두고 자산가격 위주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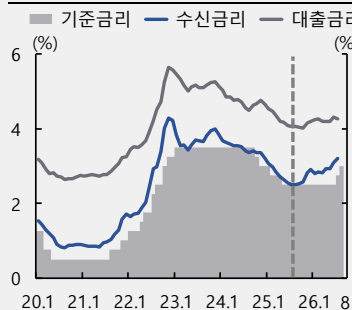
⁸¹ 신용확대·자산가격 상승간 상호작용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여 충격발생시 실물경제 위축을 증폭시킬 수 있다. FVI가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의 하위 5% 분위값(Growth-at-Risk)은 최대 0.19%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1> 「금융취약성지수 개편 결과」 참조

3. 한편 은행의 신규취급액 여수신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이전부터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2025년 하반기 이후 은행의 신규취급액 수신금리가 시장금리 상승, 금융기관의 수신 기반 확보 노력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여신금리도 지표금리가 높아지면서⁸² 오름세를 보였다.^[이슈 1-5]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 생산적 금융을 통한 기업대출 확대 정책방향 등⁸³이 맞물려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다.^[이슈 1-6]

4. 이러한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의 변화는 시차를 두고 점차 차주의 전체적인 이자부담 증가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의 실제 이자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대출금리(전체 대출잔액에 적용되는 평균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대출의 금리조건 및 재산정 시차 등의 영향으로 조정속도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에 비해 완만하다.^[이슈 1-7] 실증분석⁸⁴ 결과, 은행의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후 약 5개월, 은행의 연체율은 15개월 후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금리 인상이 차주의 실제 이자부담 및 신용위험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1-5]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 여수신금리 변화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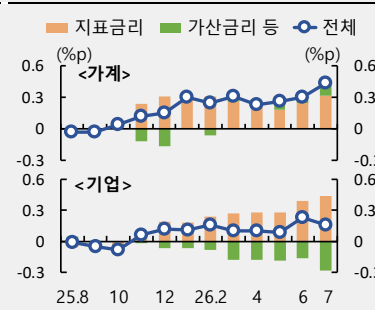
금리인상 이전부터 여수신금리 상승



주: 1) 점선은 25.8월
2) 수신은 저축성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이슈 1-6] 신규취급액 기준 차주별 대출금리 변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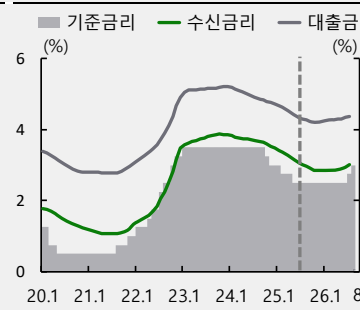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보다 크게 상승



주: 1) 25.8월 이후 누적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슈 1-7] 잔액기준 은행 여수신금리 변화¹⁾²⁾

잔액기준 여수신금리는 시차를 두고 반응



주: 1) 점선은 25.8월
2) 수신은 저축성 기준
자료: 한국은행

5. 금리 상승에 대한 차주별 대응여력을 살펴보면, 가계의 평균적인 대응여력은 과거 인상기 대비 양호한 편이다. 가계는 지난 기준금리 인상기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가계 대출 관리 및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추진 등에 힘입어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낮아지고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대체로 하락(21.7월말 68.4% → 26.6월말 56.1%)하였다. 가계 취약차주 비중은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비교적 낮은 수준(6~7% 내외)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과거 인상기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상환여력이 다소 약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이슈 1-8, 9]

⁸² 은행 대출금리의 지표금리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COFIX 등이, 가계신용대출 및 기업대출의 경우 금융채·CD금리 등이 활용된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지표금리가 COFIX(신규취급액 기준) 32bp, 금융채 6개월물 65bp, CD 91일물 40bp 상승했으며 2026년 7~8월중에는 각각 21bp, 17bp, 5bp 상승하였다(월중 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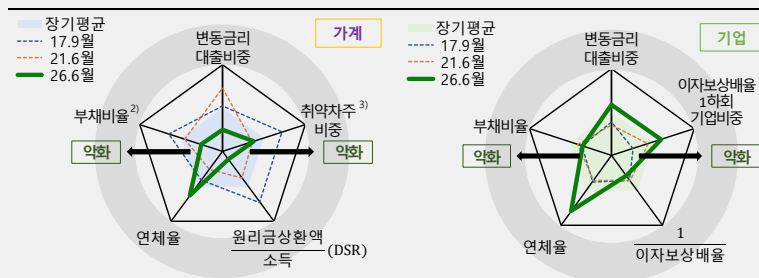
⁸³ 이외에도 포용금융 등 서민금융대출 비중 확대, 은행법 개정(2026.7.1일 시행)에 따른 보증기관 출연금의 가산금리 반영 제한 등이 영향을 미쳤다.

⁸⁴ BIS CGFS(2024) 방법론을 적용하여 2007.1~2026.6월 월별 자료로 국소투영법을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와 연체율의 월별 반응(민감도)을 추정하였으며, 각 변수의 12개월 시차항 및 산업생산·소비자물가를 통제하였다.

6. 기업의 경우 그간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는 등 일부 취약부문의 대응여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경기 개선 등의 효과가 이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보인다.⁸⁵ 기업의 부채 비율 및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과거 인상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한계기업의 비중도 지난해말까지 상승하였다.^[이슈 1-8, 9] 다만 최근 경기 개선과 생산적 금융 등 기업대출 확대 유인으로 기업의 가산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점이 금리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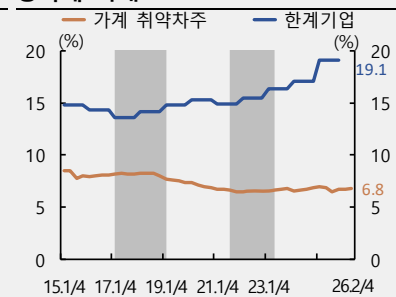
[이슈 1-8] 차주의 금리위험 취약성 지도¹⁾

과거 인상기대비 가계의 취약성은 대체로 개선, 기업 지표는 차별화



[이슈 1-9] 취약부문 비중

가계 취약차주³⁾에 비해 한계기업⁴⁾ 증가세 확대⁵⁾



주: 1) 2015년 이후 각 지표(계절성이 있는 경우 계절조정치)별 장기평균을 0이 되도록 표준화한 후 전체 기간대비 각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표준편차로 표시

2) 연 기준

3) 차주수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이하 동일)

4) 연간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기업 (이하 동일)

5) 음영은 금리 인상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Value Search

7. 상황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에는 대출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보유 금융자산·소득 등 완충여력이 부족한 가계와 기업⁸⁶은 이자비용 증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워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⁸⁷ 실제로 과거 대출금리 상승기에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⁸⁸ 모습을 보였다.^[이슈 1-10, 11] 또한 취약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인해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⁸⁵ 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여건 및 취약성과 관련해서는 <참고 1>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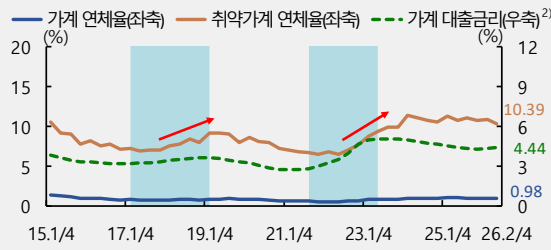
⁸⁶ 향후 1년 내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수지(이자부 금융자산의 연간 이자수입 - 이자부 금융부채의 연간 이자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채(1년 이내 만기도래 등)가 자산(예·적금 등)보다 커서 금리 상승시 순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차주는 가계 28.6%(25.3월말), 상장기업 47.2%(26.3월말)로 추정된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저소득가구(소득 1분위)의 경우 이 비중은 47.5%로 높게 나타난다(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Value Search).

⁸⁷ 우리나라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수지가 플러스(+)이지만, 금융부채 보유가구만을 보면 마이너스(-) 상태이다. 실제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 이자수지 비율'은 2024년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시산되었다(24.3월 -5.3% → 25.3월 -6.3%). 특히 저소득가구(소득 1분위)의 경우 해당 비율이 -14.0%(25.3월말)로 전체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금리 상승시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⁸⁸ 국소투영법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준금리 인상 후 은행 연체율은 가계와 기업에서 약 15개월 후 가장 크게 반응한 반면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대출에서는 약 9개월 전후 가장 크게 반응하는 등 금리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2.1/4분기~2026.2/4분기 자료 이용)

[이슈 1-10] 가계 연체율 및 대출금리¹⁾

가계 취약자주 연체율은 금리상승에 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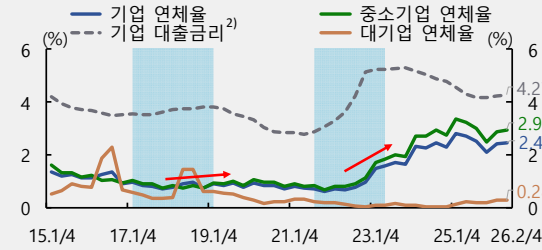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금리 인상기
2) 예금은행,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슈 1-11] 기업 연체율 및 대출금리¹⁾

중소기업 연체율도 금리상승에 민감하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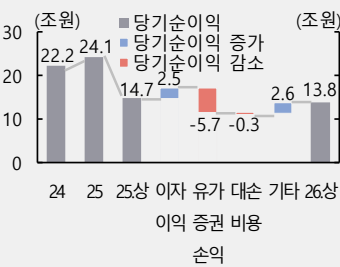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금리 인상기
2) 예금은행,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8. 금리 상승은 취약부문의 부실위험과 금융기관 보유증권의 평가손실을 확대시키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순이자마진 확대로 이자이익이 증가하면서 이를 상당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상반기 시장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 관련 손익 감소(전년동기대비 5.7조원)와 대손비용 증가(0.3조원)를 이자이익 확대(2.5조원)가 일부 상쇄하는 모습이었다.^[이슈 1-12]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실여신 감축 등으로 대손비용이 감소한 데다 이자이익이 증가하면서 202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슈 1-13]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수신 감소세에 대응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이자이익 개선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이슈 1-14]

[이슈 1-12] 국내은행 26년 상반기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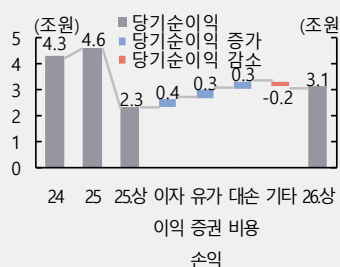
유가증권 관련손실을 이자이익 증가가 상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슈 1-13] 비은행¹⁾ 26년 상반기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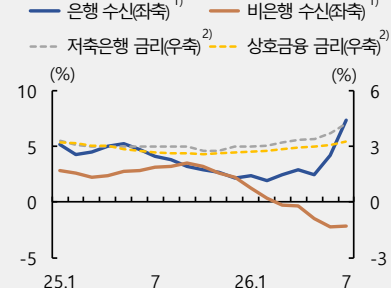
이자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손비용도 감소



주: 1)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저축은행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슈 1-14] 예금취급기관 수신

최근 비은행 수신증가율은 감소세



주: 1)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정기예금 및 예탁금(1년),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9. 이상 종합하면, 금번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을 점차 증대시킬 수 있다. 최근 경기 개선세와 경제주체의 대응여력,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대체로 감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취약부문에 파급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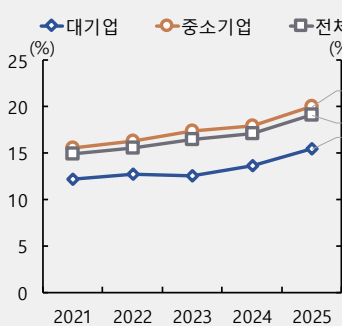
이슈 2 한계기업⁸⁹ 부실위험 평가

1. 2025년말 전체 외감기업에서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기업 수 기준)은 19.1%로 전년대비 2.0%p 상승하였다.^[이슈 2-1]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4년 13.7% → 25년 15.5%)과 중소기업(18.0% → 20.0%) 모두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한편 한계기업 상태의 지속성을 점검해 보면, 2025년 한계기업 5,632개중 3,749개(66.6%) 기업이 기존 한계기업이었으며, 2024년 한계기업(4,925개)중 정상회복된 기업(793개, 16.1%)이 전년에 비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기존 외감기업중 신규편입(1,517개)된 규모를 하회하고 있다.^[이슈 2-2]

2. 한계기업 비중(기업 수 기준)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43.7%), 숙박음식(28.4%) 등 내수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슈 2-3] 2025년중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24년 39.4% → 25년 43.7%), 금속제품(8.0% → 11.6%) 등에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설(11.7% → 12.1%), 석유화학(11.1% → 12.8%), 도소매(10.7% → 13.4%) 등 최근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업종들 역시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였다. 한편 업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종의 경우 운송장비(12.6% → 11.7%)는 동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전기전자(15.4% → 17.9%)는 상승하였다.

[이슈 2-1] 한계기업 비중
(기업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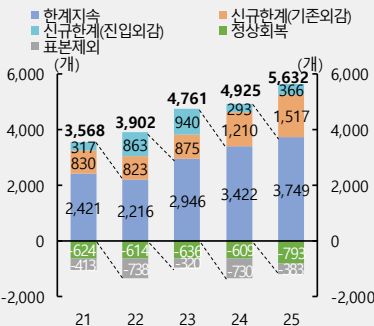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 더 높은 모습



자료: Value Search

[이슈 2-2] 한계기업 신규진입 및
회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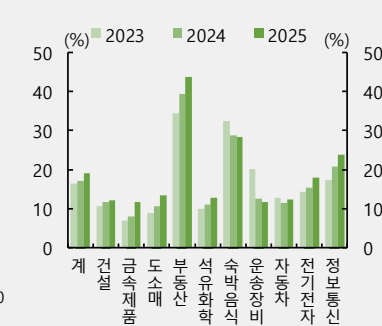
정상회복된 기업 수가 한계기업으로 신규편입된 기업 수를 하회



자료: Value Search

[이슈 2-3]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기업 수 기준)

부동산, 숙박음식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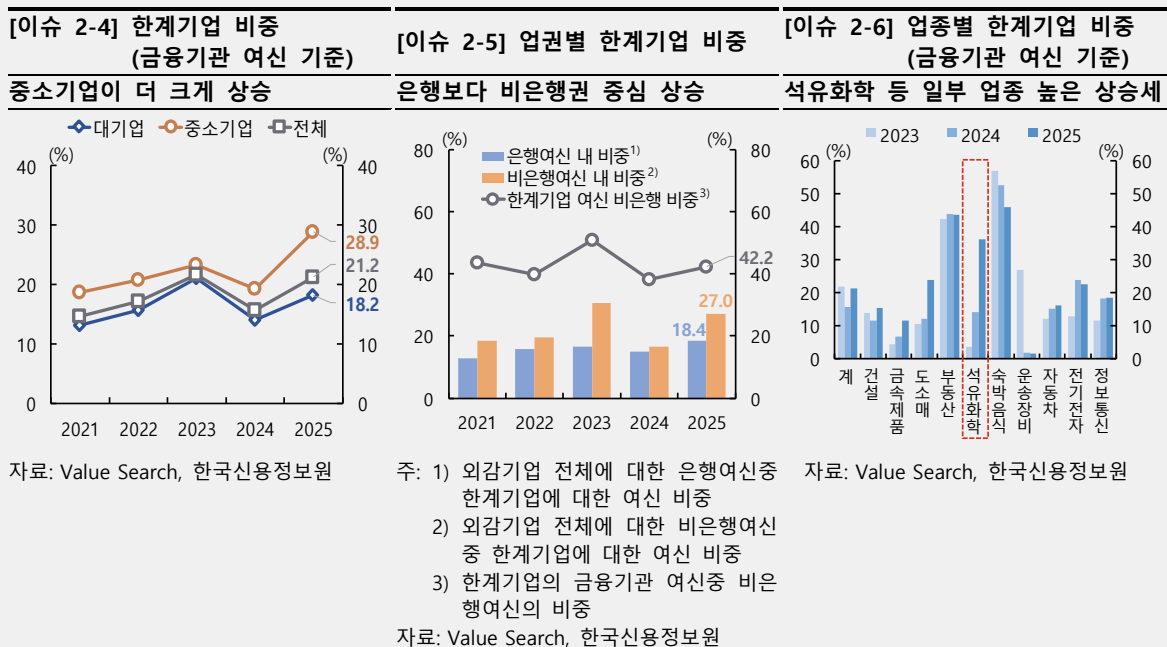
자료: Value Search

3. 한계기업 비중을 금융기관 여신 기준으로 보면, 2024년중 하락하였던 한계기업 비중이 2025년에는 다시 반등(24년 15.6% → 25년 21.2%)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이슈 2-4]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동 비중이 상승하였고 특히 중소기업(19.2% → 28.9%)이 대기업(14.0% → 18.2%)에 비해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⁸⁹ 본고는 2026년 7월말까지 재무제표 입수가 가능한 비금융법인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기업 수는 2025년 기준 29,468개(대기업 5,723개, 중소기업 23,745개)이다. 한계기업은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태가 3년간 지속된 기업으로 식별하였다.

4. 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증가폭은 비은행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이슈 2-5] 2025년말 기준 외감기업에 대한 은행권 및 비은행권 여신중 한계기업 여신의 비중은 각각 18.4%, 27.0%로 2024년(각각 15.1%, 16.6%)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비은행권 여신이 더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계기업의 금융기관 여신중 비은행의 비중이 2024년 38.2%에서 2025년 42.2%로 상승하였다.

5. 한계기업 비중(금융기관 여신 기준)을 업종별로 보면,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일부 수출업종(석유화학, 금속제품)과 도소매업에서 한계기업 비중 상승폭이 컸다.^[이슈 2-6] 특히 석유화학은 2021~22년의 일시적 호황 이후 2023년부터 구조적 부진이 다시 이어지면서 대규모 여신을 보유한 주요 대기업이 한계기업으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24년 14.0% → 25년 36.1%)이 급증하였다. 한편, 부동산(43.5%)과 숙박음식(45.8%) 등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전년대비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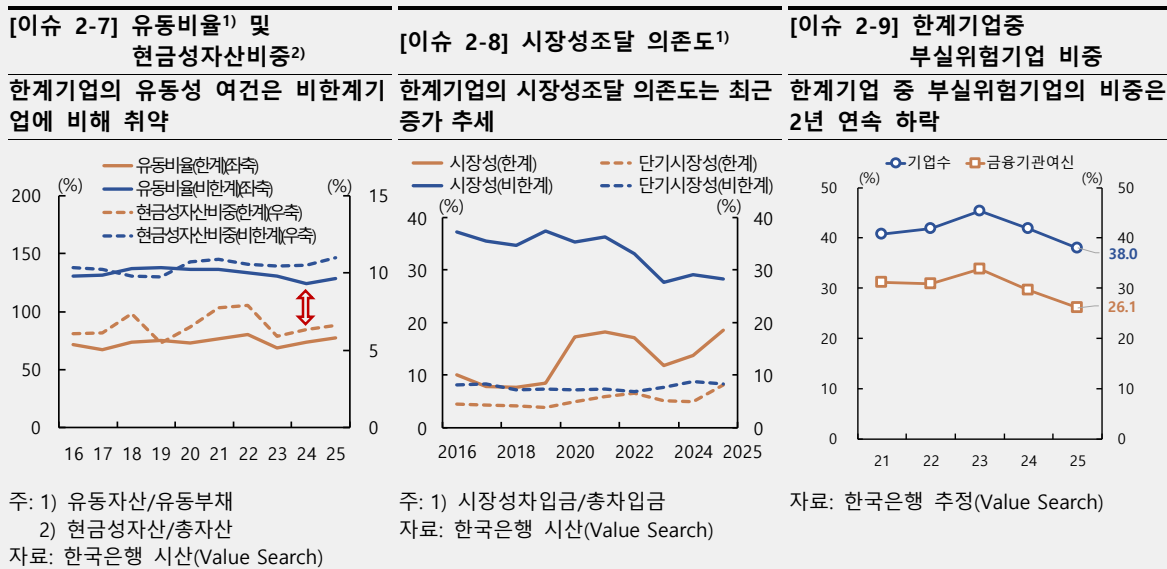


6.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유동성 관련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한계기업의 유동성 여건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슈 2-7] 한계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중(현금성자산/총자산, 2025년말 6.6%)은 비한계기업(11.0%)에 비해 크게 낮아 재무적 완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계기업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025년말 77.2%)도 100%를 하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상환요구가 확대될 경우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7. 아울러, 금융시장 접근성 악화시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부문의 시장성조달 의존도를 점검해 보았다. 비한계기업과 달리 한계기업의 시장성조달 의존도(시장성차입금/총차입금)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시장성조달 의존도(시장성단기차입금/총차입금) 또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슈 2-8] 시장성조달은 시장금리 및 투자심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기업의 시장성조달 의존도 상승은 향후 신용경계감 강화 등 시장여건 급변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8. 한편,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수 및 금융기관 여신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부실위험은 2023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슈 2-9]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기업 부실위험을 추정한 결과, 한계기업중 부실위험기업⁹⁰으로 분류되는 비중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여 2025년 38.0%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여신 기준으로도, 부실위험 한계기업 여신의 비중(26.1%)은 2023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낮아진 것은 한계기업 전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총자본/총자산)이 개선⁹¹되고 수익성 부진이 일부 완화⁹²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 종합해보면, 2025년중 한계기업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부실위험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들어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자보상배율도 상승⁹³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한계기업 비중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종별 차별화⁹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황 부진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성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시장성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차환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취약업종에 대한 여신 모니터링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위험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경계심리가 기업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⁹⁰ 국내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배율, 차입금평균이자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부도확률을 추정하였고, 부도확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부실위험기업'으로 정의하였다.

⁹¹ 한계기업 자기자본비율(평균): 23년 23.4% → 24년 29.3% → 25년 34.3%

⁹² 한계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평균): 23년 -7.4% → 24년 -7.1% → 25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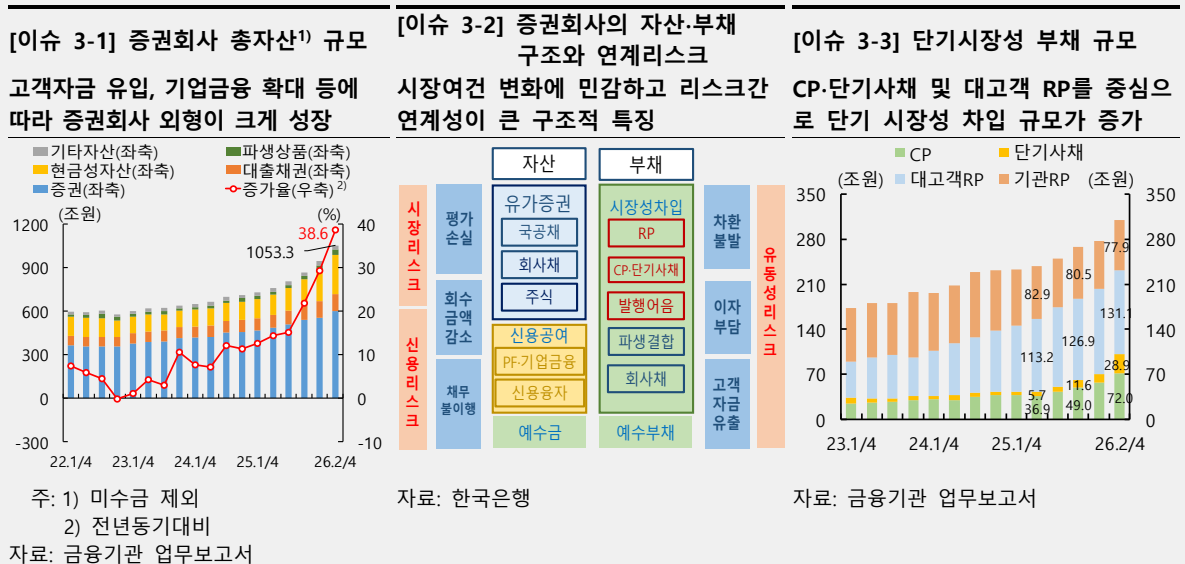
⁹³ 2026년 1/4분기 매출액증가율(25년 +2.7% → 26년 1/4분기 +19.8%)과 매출액영업이익률(7.3% → 18.0%)이 모두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자보상배율(5.2배 → 13.6배)도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2/4분기 들어서도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⁹⁴ 2026년중 기업실적 개선이 전기전자(매출액증가율: 25년 +12.5% → 26.1/4분기 +75.4%, 매출액영업이익률: 12.9% → 41.1%) 등 일부 업종에서 두드러진 데다 주요 취약 업종의 구조적 부진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기업 업황은 업종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슈 3 증권회사의 유형별 잠재리스크 점검

1.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객자금 유입, 기업금융 확대⁹⁵ 등으로 증권회사의 자산·부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향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증대될 경우 자산가치 하락, 신용위험 증대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이 함께 나타나면서 유동성·신용·시장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이슈 3-1] 이는 증권회사가 시장·신용 여건에 민감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유동성·신용·시장 리스크간 연계성이 큰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조달 측면에서는 단기 시장성 조달 비중이 높아 조달여건이 악화될 경우 유동성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운용 측면에서는 유가증권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기업·부동산 익스포저 및 신용공여에 따른 신용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다.^[이슈 3-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유형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복합적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 (유동성 리스크) 기업금융·유가증권 운용 확대와 신용공여 재원 확보,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부담 증가⁹⁶ 등으로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수요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CP·단기사채 및 대고객 RP 등 단기차입이 늘어나면서 차환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자부담이 증가하였다. 증권회사의 차입규모를 살펴보면, 2026년 상반기중 CP 및 단기사채는 각각 23.0조원, 17.3조원 순발행되었고, 증시자금을 바탕으로 CMA 조달규모가 늘어나면서 대고객 RP매도 잔액도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25년 2/4분기말 113.2조원 → 26년 2/4분기말 131.1조원)하였다.⁹⁷ [이슈 3-3]



⁹⁵ 감독당국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25.7.15일), IMA 사업자 최초지정(25.11.19일) 등을 통해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공급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⁹⁶ 특히 2026년 2/4분기중 주가 변동에 대한 헤지, ETF LP(유동성 공급자) 거래 확대에 따른 관련 익스포저 헤지,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 목적 등으로 증권회사 주식 선물거래가 전분기대비 크게 증가(1/4분기 6.3조원 → 2/4분기 15.1조원, 일평균 기준)하였다.

⁹⁷ RP형 CMA는 고객 예치금을 대고객 RP매도 형태로 조달하는 구조이므로 CMA 수신이 늘어날 경우 대고객 RP매도 규모도 증가한다.

3. 특히 상반기중 단기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초단기물(1~7일물) 중심으로 CP·단기사채 발행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단기금리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단기금융시장 수급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높아졌다. 최근에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여유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7월 이후 주식거래 감소에 따른 증권회사의 증거금 부담 축소 등으로 CP·단기사채 발행이 둔화되면서 수급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⁹⁸ 그러나 CP·단기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은 시장수급과 투자심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자금조달 안정성 저하 등에 지속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또한 단기차입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장기운용 형태로 모험자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6년 2/4분기말 증권회사의 주요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살펴보면, 자산의 경우 채권 및 신용공여가 각각 1.7년, 4.3년으로 상대적으로 장기인 데 비해 부채의 경우 RP매도가 8.5~17.6일, CP·단기사채는 0.46년 등으로 상당히 짧은 편이다.^[이슈 3-4] 특히 중소형사일수록 RP·CP·단기사채 비중이 높고 만기가 긴 회사채 조달 비중이 낮아⁹⁹ 부채 듀레이션이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

5. (신용리스크) 부동산PF 익스포저 축소¹⁰⁰ 등에 따라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중소형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2026년 2/4분기말 22.7%)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슈 3-5] 이는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취급한 채산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부실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PF대출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일부 '요주의' 등급의 PF대출이 '고정' 이하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PF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¹⁰¹

6. 또한 증권회사의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¹⁰²은 사업 부실이나 차환 실패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현실화되어 손실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실 사모사채 규모(2/4분기말 1.54조원)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2022년 사태와 같이 PF-ABCP 차환여건 악화 등의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신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¹⁰³ [이슈 3-6]

[이슈 3-4] 주요 자산·부채 잔존만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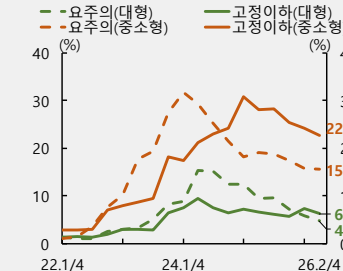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상존

자 산		부 채	
전체채권	1.7년	기관간 RP	8.5일
국채 등	5.1년	대고객 RP	17.6일
특수채	1.1년	CP·단기사채	0.46년
금융채	0.7년	발행어음	1년 이내
회사채	1.4년	파생결합	3.3년
신용공여 ²⁾	4.3년	회사채	4.0년

주: 1) 채권은 듀레이션(26.6월말), 부채는 만기별 가중평균(7.31일)
2) 종투자 기업신용공여(25.12월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연합인포맥스 한국은행 시산

[이슈 3-5] 부동산PF 관련 요주의·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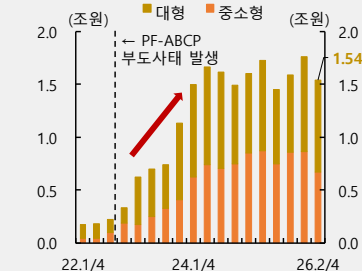
중소형사의 부동산PF 관련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슈 3-6] 부실 사모사채 규모

과거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부실 사모사채 규모가 누적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⁹⁸ 증권회사 초단기(1~7일물) CP·단기사채 발행액(조원): 26년 3월 74.9 → 4월 97.9 → 5월 134.6 → 6월 119.9 → 7월 38.2

⁹⁹ 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액(44.8조원, 26.7월말 기준)중 대형사 발행비중은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¹⁰⁰ 증권회사 PF대출 잔액(조원): 23년말 7.8 → 24년말 10.9 → 25년말 9.2 → 26년 1/4분기말 9.0

¹⁰¹ 증권회사 PF대출 연체율(%): 23년말 13.8 → 24년말 20.7 → 25년말 28.4 → 26년 1/4분기말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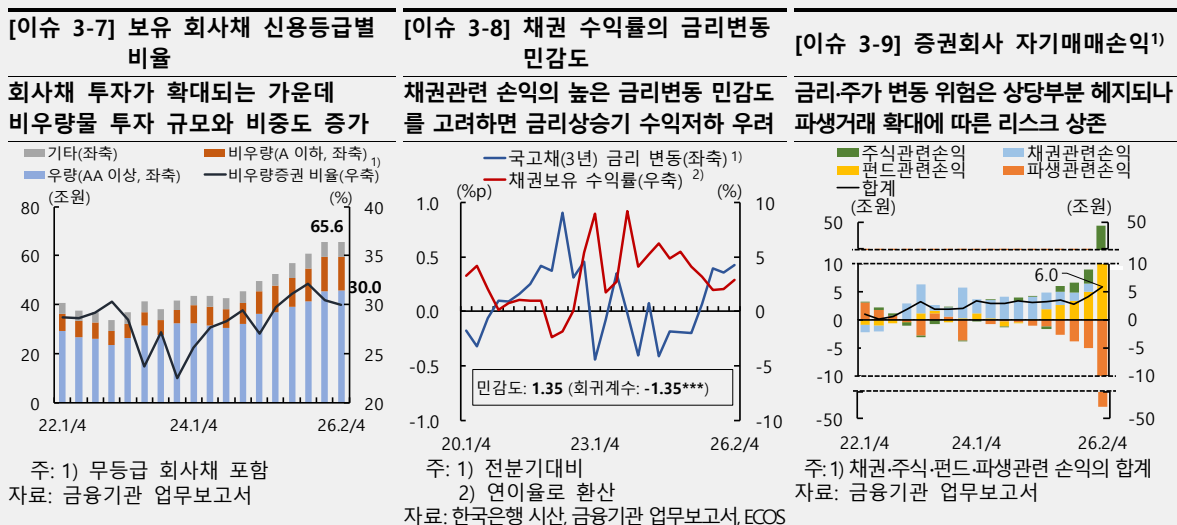
¹⁰² 2026년 2/4분기말 증권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은 약 24.5조원(대형사 20.5조원, 중소형사 4조원) 수준이다.

¹⁰³ 또한 해외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해외대체투자 익스포저(2026년 2/4분기말 13.4조원)는 감소세로 투자규모 측면에서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아 추가 평가손실, 매각 지연 리스크 등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7. 증권회사의 회사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우량물 투자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회사채 발행기관의 신용도가 저하될 경우 보유 회사채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2026년 2/4분기말 증권회사의 일반 회사채 보유액은 65.6조원으로, 비우량물(A 이하) 및 무등급 기타채권 등의 투자 규모 및 비중이 증가(비우량채권(무등급 포함) 규모(비중): 24년 1/4분기 11.1조원(25.5%) → 26년 2/4분기 19.6조원(30.0%))하고 있다.^[이슈 3-7] 또한, 증권회사는 회사채 또는 단기증권의 발행·인수과정에서 차환 보증, 미매각 물량 보유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추가로 노출될 수도 있다.

8. (시장리스크)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규모(2026년 2/4분기말 559.2조원)가 크게 증가¹⁰⁴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주가 조정,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증권회사의 손익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유가증권중 상당 부분(56.2%)을 차지하는 채권의 경우 채권관련 손익의 금리 민감도¹⁰⁵가 높아 채권보유 확대가 금리 상승기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이슈 3-8] 또한 주식(15.2%), 펀드(11.7%)는 보유비중이 채권에 비해 작지만, 국내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평가·매매 손익의 변동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금리·주가 변동 위험은 상당 부분 파생상품 등을 통해 헤지되고 있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거래 증거금 증가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불안전헤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거래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이슈 3-9]

9. 현재 증권회사의 자본·유동성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증권회사의 전반적인 조달·운용 여건 변화시 유동성·신용·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¹⁰⁶ 단기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경우 차환 부담(유동성 리스크)이 증가하고 동시에 자산 매각(시장 리스크)이 확대될 수 있으며, 보험자본 공급 과정에서 저신용·비유동자산 익스포저(신용·유동성 리스크)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향후 단기 시장성 조달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달기반과 충분한 유동성·손실흡수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리스크간 연계 및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¹⁰⁴ 2023년 이후 완화적 금융여건, 기업금융 확대 등에 따라 증권회사들의 금융채·회사채 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발행어음, IMA 업무가 허용된 종투사는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50%, IMA 조달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함에 따라 회사채 운용 규모가 확대되었다.

¹⁰⁵ 2020년 이후 국고채(3년)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보유 수익률(채권관련수익/평균 채권보유액) 변동을 분석한 결과,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할 때 채권수익률은 1.35%p 하락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¹⁰⁶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후술하는 「증권회사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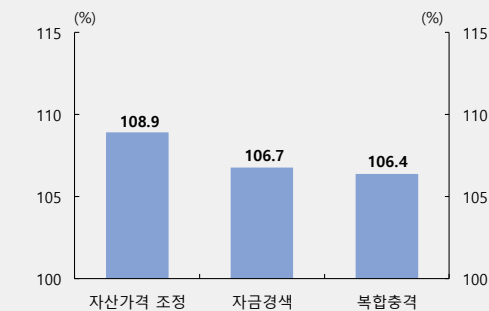
증권회사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앞서 살펴본 유형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증권회사¹⁰⁷들이 충분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①2020년 자산가격 조정(주가 급락, 신용스프레드 확대), ②2022년 자금경색(시장 금리 상승, 차환리스크 확대, 우발채무 현실화), ③복합충격(①과 ② 동시 발생) 상황을 설정하였다.¹⁰⁸

테스트 결과, 증권회사 유동성과 자본적정성 모두 복합충격에서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③복합충격시 전체 유동성확보비율은 106.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자산가격 조정 및 ②자금경색시 각각 108.9%, 106.7%로 나타났는데, 자금경색 충격의 영향이 자산가격 조정보다 큰 모습을 보였다. 자본적정성의 경우 자본비율(조정NCR)¹⁰⁹이 ①자산가격 조정 및 ②자금경색시 각각 179.4%, 167.9%로 하락하였으나, ③복합충격시 162.0%로 2026년 2/4분기말(195.4%)대비 33.4%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개별 증권회사 자본비율은 모두 100%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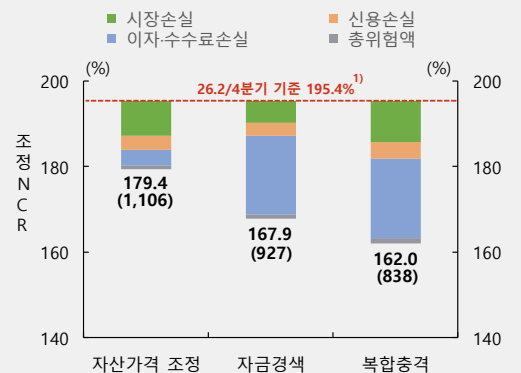
또한 자기자본대비 위험액과 채무보증 부담이 크고 기업신용공여 등 운용구조가 서로 유사한 회사들의 경우 복합충격시 유동성확보비율과 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채무보증 이행 등에 따른 자금 유출과 인수자산 손실이 유동성과 자본에 부담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채무보증 부담이 큰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와 손실흡수 여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슈 3-10] 시나리오별 유동성확보비율¹⁾



주: 1) 현금확보가능액/현금유출예상액
자료: 한국은행 시산

[이슈 3-11] 시나리오별 자본비율¹⁾



주: 1) 조정NCR 기준, () 안은 NCR(순자본비율)이고 26.2/4분기 NCR은 1,348%
자료: 한국은행 시산

¹⁰⁷ 분석대상 증권회사 수는 총 36개사(중투사 10개사, 중형 10개사, 소형 16개사)이며, 중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중형은 1~3조원, 소형은 1조원 미만(유동성 부채 비중이 작은 일부 소형사는 제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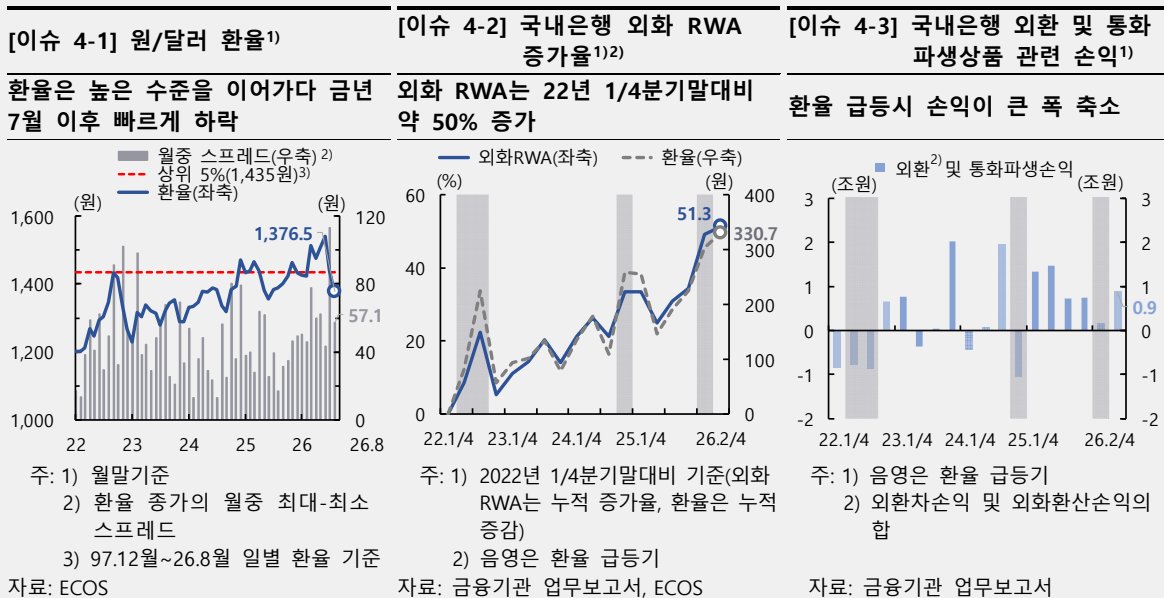
¹⁰⁸ 유동성은 3개월 이내, 자본적정성은 1년 이내 시계에서 복원력을 평가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강도는 각 위기 당시 관측치를 적용하였다(①자산가격 조정: 주가 -35%, 신용스프레드 확대(회사채(AA-) +60bp, CP스프레드 +100bp), ②자금경색: 국고채(3년) 금리 +100bp, CP스프레드 +200bp, 채무보증(52.8조원)의 16%(신용등급 A1)-60%(A2 이하) 이행).

¹⁰⁹ 조정NCR은 (구)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에 유형자산과 잔존만기 3개월 이상 대출채권은 포함, 후순위차입금은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이슈 4 환율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부문 영향 평가

1.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금년 7월 이후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이슈 4-1] 이에 환율 불확실성이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등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다.

2. 환율 등락은 은행권의 재무상황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먼저 위험가중자산(이하 RWA) 측면에서 보면, 환율 변동으로 은행 외화자산 원화환산액, 통화파생 익스포저 관련 신용 RWA¹¹⁰ 변화를 통해 외화 RWA¹¹¹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간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상승¹¹²하면서 2026년 2/4분기말 국내은행 외화 RWA는 2022년 1/4분기말대비 약 50% 증가하였다.^[이슈 4-2] 다음으로, 환율 등락은 외환 및 통화파생 손익을 통해 은행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율 변동성 확대는 관련 손익의 변동을 확대¹¹³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년 1/4분기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이익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이슈 4-3] 다만, 7~8월중 환율이 빠르게 하락한 만큼 최근 5년중 환율이 하락했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외화 RWA가 9.3~15.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¹¹⁴된다.



¹¹⁰ 환율 상승시 은행의 대고객 통화파생상품 평가액이 증가하며, 이는 통화파생 신용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¹¹¹ 2026년 2/4분기말 기준 외화 RWA 비중은 27.2%로 2022년말대비 4.1%p 상승하였다.

¹¹² 본고에서는 환율 급등기를 기말 환율이 전분기말대비 70원 이상 상승한 분기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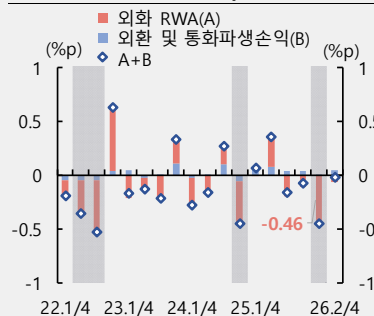
¹¹³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2022년에도 환율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외환 및 통화파생 손실이 크게 확대된 바 있었다.

¹¹⁴ 원/달러 환율은 8월말 기준 6월말대비 165원 하락하였는데, 과거 환율 하락기에 은행의 외화 RWA는 100원 하락시 약 5.6~9.3% 감소한 것을 적용한 결과이다.

3. 환율 상승은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유동성 관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2026년 1/4분기중 가파른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RWA 확대는 총자본비율에 전분기말대비 0.46%p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이슈 4-4], 2022년 이후 환율 상승분을 감안할 경우 국내은행은 그간 1.5%p의 자본비율 하락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분석된다.^[이슈 4-5] 다만, 7월 이후 환율이 큰 폭 하락함에 따라 3/4분기에는 자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환율 하락기에 비추어 볼 때, 금년 7~8월중 환율 하락분을 적용해보면 약 0.5~0.6%p의 자본버퍼를 확보¹¹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율 상승시 통화파생상품 관련 증거금 납입 규모가 확대¹¹⁶되면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금년 2/4분기말 파생거래의 변동증거금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70% 수준에 그치는 등 국내은행의 유동성에 미친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다.^[이슈 4-6] 이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감독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2026년 6월 114.0%)을 유지하였다. 이에 더해 최근과 같은 환율 하락 흐름이 지속된다면 파생거래의 변동증거금도 함께 축소되면서 유동성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 4-4] 국내은행 총자본비율 변동요인 분해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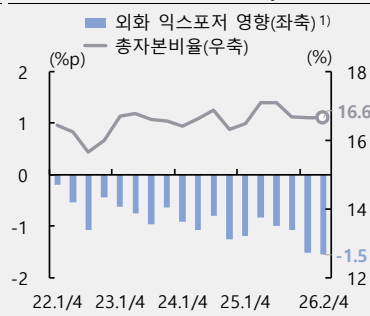
환율 상승은 26년 1/4분기 자본비율에 전분기말대비 약 0.46%p 하락 압력



주: 1) 국내은행 총자본비율 변동폭(전 분기말대비)의 구성 항목별 기여 정도를 분해
2) 음영은 환율 급등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슈 4-5]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의 외화 익스포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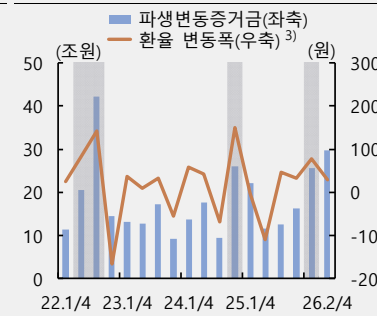
환율 상승으로 자본비율은 22년 1/4분기말대비 누적으로 약 1.5%p 하락



주: 1) 2022년 1/4분기말대비 누적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슈 4-6] 국내은행 장외파생상품 변동증거금¹⁾²⁾

최근 장외파생상품 변동증거금 부담이 은행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주: 1) 전체 장외파생상품 기준
2) 음영은 환율 급등기
3) 전분기말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ECOS

4. 한편,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최근의 환율 변동에도 제한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회사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환 및 통화파생상품 관련 이익이 증가했다가 금년 2/4분기에는 크게 축소되는 등 환율 움직임이 손익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과거 환율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시기에 대체로 증권회사의 외환 및 통화파생관련 손익이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환율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마찬가지로 관련 손익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외환위험액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총위험액대비 비중이 2026년 2/4분기말 3.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환율 등락이 증권회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슈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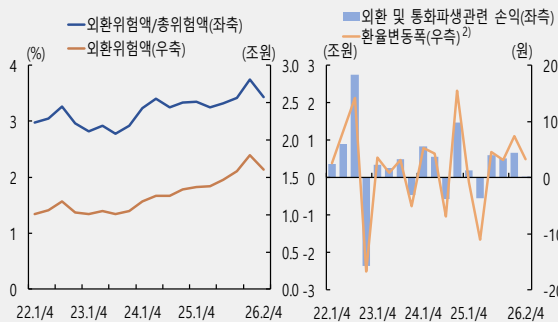
¹¹⁵ 과거 환율 하락기에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00원 하락시 약 0.3~0.4%p 개선되었다.

¹¹⁶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통화파생상품 매도(부채) 거래에서 시가평가 금액이 증가(현재 환율 > 약정 매도환율)하여 증거금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

5. 보험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통화파생거래를 통해 환헤지하고 있어 최근 환율 변동성이 이들 포지션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의 요구자본 측면에서 보면, 2023년 이후 환율 상승과 함께 외환위험액이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지급여력기준금액대비 비중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환율 변동이 자본비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체로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환율 상승시 환헤지 비용 및 차환 부담이 커지고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실에 따른 추가 납입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상반기중 높은 환율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이 양호하게 유지되면서 통화스왑 등을 통한 환헤지 및 차환여건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¹¹⁷, 7월 이후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관련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이슈 4-8]

[이슈 4-7] 증권회사 외환위험액¹⁾ 및 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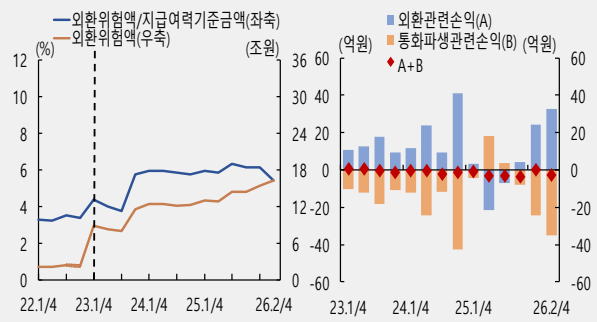
외환위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 변동성이 확대



주: 1) 외화 포지션을 대상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
2) 금분기말 환율 - 전분기말 환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ECOS

[이슈 4-8] 보험회사 외환위험액¹⁾ 및 손익

외환위험액 비중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환헤지로 환율 변동 위험이 적절히 관리



주: 1)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외환위험액도 산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RBC)보다 외환위험 반영 정도가 확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6. 그동안 높은 환율 수준이 비교적 오랜기간 지속된 가운데 금년 상반기 들어서는 환율이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나, 금융부문에 미친 충격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 등에 힘입어 과거 환율 급등기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¹¹⁸ 7월 이후 환율 상승세가 진정됨에 따라 은행의 자본버퍼가 늘어나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¹¹⁹ 다만 향후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동향, 주요국 정책금리 및 국채금리 향방 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¹²⁰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기관은 환율 움직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리스크 대응여력과 함께 대출여력도 확보해 갈 필요가 있다.

¹¹⁷ 금년 들어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하였으나 CRS 금리(1년물 기준)가 연초대비 1.4%p 상승하는 등 외화자금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었다.

¹¹⁸ 한편 기업에 대한 환율의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환율 상승은 자동차, 운송장비, 전기전자 등 수출업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건설, 부동산 등 내수업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II. 주요 현안 분석> 「1.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기업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참조

¹¹⁹ 자본버퍼 확대는 주로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5> 「은행권 자본비율 관리 여건의 변화 및 평가」 참조

¹²⁰ 9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환율이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 담당팀 및 집필자

부문	담당팀	집필자
작성총괄	안정총괄팀	조성민·박민렬·홍세림
I. 종합 평가	안정총괄팀 시스템리스크팀	박민렬·홍세림 문성원·김창훈
II. 부문별 상황		
1. 가계 및 기업 신용		
(1) 가계신용	안정총괄팀	홍준선·홍세림
(2) 기업신용	안정분석팀	이준성·남지윤
(3) 신용 레버리지	안정총괄팀	홍준선·홍세림
<참고 1>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안정분석팀	편도훈·손희주
2. 자산시장		
(1) 채권시장	채권시장팀	이진우·윤준호
(2) 주식시장	주식시장팀	허진우·김예은
(3) 부동산시장	안정분석팀	강수연·정서영
(4) 기타 자산시장	비전통금융분석팀	박상훈·김진
<참고 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안정분석팀	강수연·정서영
<참고 3> 8월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안정분석팀 안정총괄팀	강수연·정서영 홍준선
3. 금융기관		
(1) 은행	은행분석팀	송상현·임서하·이윤진
(2) 비은행	중소금융분석팀 증권보험분석팀	문지희·홍준유·강정운 김상욱·고은아·황보현
<참고 4> 카드사 주요 리스크 요인	중소금융분석팀	홍준유·강정운
<참고 5> 증시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시스템리스크팀	오세연·권이태
4. 대외부문		
(1)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	외환시장팀	김영웅·김홍준
(2) 자본유출입	자본이동분석팀	신상호·이주현
(3) 대외지급능력	자본이동분석팀	임준혁·한창현
<참고 6> 최근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부진 배경	해외투자분석팀	권나은·안서연
5. 금융제도 및 정책	자본이동분석팀 금융제도팀 글로벌금융규제팀	신상호·한창현 임준혁·한창현 주문석·황다슬·오건우 김범준
III. 주요 이슈 분석		
<이슈 1>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 금융안정 상황 점검	금융안정협력팀	최은지·조든찬·김태형
<이슈 2> 한계기업 부실위험 평가	안정분석팀	이준성·남지윤
<이슈 3> 증권회사의 유형별 잠재리스크 점검	증권보험분석팀 시스템리스크팀 안정총괄팀	김상욱·고은아·황보현 문성원·김창훈 이영선
<이슈 4> 환율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부문 영향 평가	은행분석팀 증권보험분석팀	송상현·이윤진 고은아·황보현
검토자		
금융안정국 부장	이정연·김정호·조규환	부국장 안상기
팀장	조은아·김혜연·강정미·김경섭·이혜진·이신영·나성오·이현창·이윤숙·박나연	